

HUFES



HUFES ALUMNI ASSOCIATIONS
ACROSS THE COUNTRY
TO SERVE AS A GLOBAL HUB

Cover Story

한국외대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의 역사

Inside HUFES

스마트한 도서관,
캠퍼스의 문화 공간으로

Global Issues

중국 경제 위기를
바라보며

HUFES Topic

한국외대-HD한국조선해양,
글로벌 지역 전문 비즈니스
인력 양성 위해 맞손



한국외대, 첨단지식을 HUFS하다

글로벌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대학, 한국외대 2024학년도 신설학부



Language & 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AI데이터융합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3년 연속 선정	100개국 617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 협력	캠퍼스 구분 없는 이중전공 & 7+1 해외파견	특수외국어 16개 포함 45개 외국어 교육	다양한 현장 글로벌 인턴십과 취업 지원
--------------------------------	---------------------------------	---------------------------------	-------------------------------	-----------------------------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HUFS 2023 AUTUMN Vol. 120

한국외대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의 역사

SPECIAL THEME

02	Cover Story	제3회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회 총회 및 미주 주요 동문회 개최
04	Special Theme	한국외대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의 역사
06	Theme Interview	한국외대가 추구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장봉익 미래위원장
10	HUFS Interview	십시일반, 모교에 보내는 동문회의 마음 - 시대를 앞서가는 HUFSan을 위해 영어대학 동문회 - 우리 모두 HUFSan, 후배들을 위한 응원 베트남 재하노이 동문회 언론과 윤리 - 제22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김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Dream(Lions) come true - 2023 드림 라이언즈 그랑프리 수상 김정민 ELLT 19
18	Inside HUFS	스마트한 도서관, 캠퍼스의 문화 공간으로 조희문 서울캠퍼스 도서관장
20	Global Memoirs	가까이에서 경험한 세계 - '2023학년도 여름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기 김태정 화학 19
22	I am HUFSan	오로지 잼버리 참가자들만을 생각했던 시간 - 한국외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참가자지원TFT 최태경 HUFS Dorm 학사운영팀장 / 육진호 국제학사 학사운영팀장 김석중 글로벌캠퍼스 총괄지원팀장 / 박식원 인사혁신팀장
26	Global Issues	중국 경제 위기를 바라보며 강준영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 중국어통번역학과 학과장 · 국제지역연구센터장

HUFS NEWS

30	HUFS Topics	2023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한국외대-HD한국조선해양, 글로벌 지역 전문 비즈니스 인력 양성 위해 맞손 김덕술 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 회장, 학교 발전기금 추가 3억원 약정 한국외대-KOTRA, 글로벌 지역통상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위한 업무 협약 체결
34	HUFS Today	
39	HUFS Academies	
44	HUFS Professors	
45	New HUFSan	
46	HUFS Institutes	
48	CUFS News	

DONATION & ALUMNI

50	Donation & Alumni
54	Donation list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회(회장 이호덕·이사장 이택선, 이하 '해외동문연합회')가 주최하고 뉴욕동문회(회장 김태훈·이사장 김종호)가 주관하는 제3회 '한국외국어대학교 해외동문연합회 총회'가 7월 21일(금)~23일(일) 뉴욕 하얏트호텔에서 열렸다. 세계 각 지역 동문회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이호덕 해외동문연합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해외동문연합회 이택선 이사장, 박정운 총장, 양인집 총동문회장, 김종호 뉴욕동문회 이사장, 이상호 뉴욕 G-CEO 회장,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의 축사에 이어 총회 보고와 총동문회 사업 계획 소개로 진행됐다.

이날 박정운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대하는 해외동문연합회는 앞으로도 동문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데 있어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래 시대를 선도하며 4차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대학의 새로운 혁신과 과감한 도전에 대해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총회 참석자들은 “해외동문연합회 총회를 계기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동문들이 힘을 모아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활발한 활동으로 외대인의 긍지와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해외동문연합회 총회를 시작으로 미주 지역 주요 동문회가 개최됐다.

박정운 총장은 뉴욕, 워싱턴, 델러스,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별 동문회와 여러 동문들을 만나 우리 대학의 발전과 해외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으로 미주 동문회와 동문들은 약 8억원에 달하는 소중한 기부 의 뜻을 전했고, 앞으로도 대학 발전의 성장 동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제3회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회 총회 및 미주 주요 동문회 개최



한국외대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의 역사

1954년 설립된 이래 한국외대의 역사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 글로벌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한국외대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의 역사를 살펴본다.

1954년 개교

우리 대학은 1954년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달해 인류 문화를
선도해 나갈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전쟁의 폐해를 딛고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국가, 언어와 문화를
포용하게 될 때 비로소 찾아올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설립된 외대는
민족 문화의 주체성과 특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 창조를 지향하고
마련하고자 했다. 처음 설치된 학과는
영어과와 불어과, 중국어과, 독일어과,
노어과이며 이듬해 서반어과를 증설했다.

1960년대

우리 대학은 1960년대 시청각교육원을 설치해
당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어학 실습 설비를 갖췄다.
또한 세계 무대로 시야를 넓혀 미국 UC Berkeley를
비롯해 스페인 마드리드대학교, 사우디아라비아
알 리야드대학교, 프랑스 제3파리대학교,
태국 쏘라롱껀국립대학교, 독일 뷔르츠브르크대학교,
일본 와세다대학교, 체코 카렐대학교,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 등 세계 각지의 명문대학들과의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경영연구소와
언어연구소를 설치했고, 뒤이어 중국문제연구소,
동유럽·발칸 문화연구소 등 19개 연구소를 설치했다.



1960년대 원어 강의 수업

1970년대

1970년대 들어서는 우리 대학에 무역대학원이 설립됐다.
이후 통역대학원과 교육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정책과학대학이 설립돼 연구소와 더불어
연구 기능을 강화했다. 국내 유일이자 동양 최대 규모의
통번역대학원 설치도 바로 이 시기에 이뤄졌다.



1975년 외국어연수원 제1기 이수식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를 개교했다.
문리과대학에 전자계산학과, 자연과학대학에
환경학과와 미생물학과를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호주, 포르투갈, 영국, 칠레, 브라질, 쿠웨이트,
스웨덴, 폴란드, 베트남, 루마니아, 헝가리 등
세계 각국 대학 및 기관들과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1980년 글로벌캠퍼스 건설 기공식

1990년대

우리 대학은 1990년대 세계 각 지역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외국학종합연구센터를
선보였다. 아울러 국제지역대학원을 설립했으며,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최우수대학과 세계화 분야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자연과학대학에 산업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신설했고,
정보통신공학과와 정보산업공과대학도 처음 생겼다.



2004년 6월 11일 통번역대학원 세계통번역대학원협의회(CIUTI) 정회원교 가입 기념식

2000년대

2000년대에는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에
창업보육센터를 개관했다.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와
복수 학위 협정을 체결했고, 통번역대학원은
세계통번역대학원협회(CIUTI)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BRICs 지역 진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강화사업으로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것도 이 시기다. 또한 유엔평화대학과
공동학위 운영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고,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 거점대학인 'ABT
(Active Brain Tower)대학'으로 선정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도 받았다.

2010년대

우리 대학은 2010년대 국립대만사범대학간 2+2
학생 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LA 한인상공회의소와
인턴십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보훈처와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도 시작했다.
이 시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외교관, 공무원,
비즈니스맨 등 지도자를 배출했다”고 평가받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특별연설

또한 Language & Diplomacy학부를 신설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공동 교양학부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Language & Trade학부와 융합연구센터를
새로 선보였고, 국제금융학부와 경영정보학과를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와
국제금융학과로 개편했다. 이어 바이오메디컬공학부를
신설했고, 융인캠퍼스의 명칭을 '글로벌캠퍼스'로
공식화했으며, 글로벌다형치식융합전공도 신설했다.

우리 대학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 11개 외국어대학이
참여하는 '아시아 지역 외국어대 협의체'가
발족된 것도 2010년대의 일이다. 교육대학원에는
창의융합인재교육전공을 새롭게 선보였고,
영어학과 명칭을 ELLT(English Linguistics &
Language Technology)학과로 변경했다.
총장 직속 기관인 AI교육원, 글로벌캠퍼스에
융합인재대학을 신설했다.



2014년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준공

2020년대

2020년대 들어 우리 대학은
교육대학원 내 인공지능융합교육전공을,
일반대학원에 AI융합학과를 새로 선보였다.
또한 정치행정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에
융합미디어콘텐츠학과, 일반대학원 한중문화학과
박사 학위 과정에 한중문화융합특별과정을 신설했다.



2023년

우리 대학은 올해 서울캠퍼스에 Language &
AI융합학부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글로벌캠퍼스에 Finance & AI융합학부와
AI데이터융합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등 총 8개 첨단 융합학부를 신설했다.

오는 2024년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은
현재 서울캠퍼스에 9개 단과대학,
글로벌캠퍼스에 8개 단과대학을 두고
8개 학부와 59개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일반대학원을 비롯한 3개의 전문대학원과 5개의
특수대학원, 각종 연구소가 있다.
또한 세계 101개국 579개 대학 및 67개 기관과
교육 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외대가 추구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장봉익 미래위원장

대학 교육에서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외대는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장봉익 미래위원장이 그리는 한국외대형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은 시대적 요구

대학은 글로벌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장봉익 미래위원장은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한다.

“과거의 대학 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구체적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보다는 Generalist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초격차, 초연결 사회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변화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창의 융합 인재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내용과 체계를 수립해 발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대학 교육도 이제 경쟁적으로 ‘융합적’, 나아가 ‘창의 융합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일까. 장봉익 미래위원장은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교양, 국제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첨단 지식 기술 기반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 등을 고루 갖춘 인재라고 답한다.

“우리 대학의 창학 정신인 진리, 평화, 창조의 가치 위에 융합적 지식과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창의 융합 인재가 현재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 생각합니다. AI, Big Data, Semi Conduct, IoT, Bio, Climate, Creative Industry, FinTech, ESG 등에 대한 지식과 외국어 능력, 국제 사회에서 모범이 될 소양과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가 바로 우리 대학이 양성하려는 글로벌 융합 인재상입니다.”

외대다운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신설학부와 고유역량의 유기적 결합

우리 대학은 1954년 대학 출범 이래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대학으로, 가장 오랜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교육의 역사를 갖고 있다. 장봉익 미래위원장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우리 대학만의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노하우를 설명한다.

“우리 대학은 1965년 학생들이 전공 외국어와 지역학을 배우면서 동시에 부전공으로 인문학, 사회과학이나 다른 외국어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국제 관계 전문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현재는 기존 부전공 제도와 더불어 이중전공 제도를 실시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늘어났으며, 향후 Micro Degree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스펙트럼을 더욱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개교 이래 101개국 579개 대학, 67개 기관과 교육 및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학생들은 7+1 프로그램, 교환학생 제도, 2+2 복수학위 제도,

글로벌 무한 경쟁 속 성공의 토대 만들 것

이어 장봉익 미래위원장은 우리 대학의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다.

“우리 대학은 이중전공, 부전공을 넘어서 Micro Degree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며, 다양한 조합의 융합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모든 학생이 여러 학문의 융합적 토대 위에 경쟁력을 키워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과간 벽을 허물어 학문적 융합의 제도적 토대를 만들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스펙트럼을 더욱 넓히는 방안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생들의 경우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학과나 학문의 벽을 넘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나, 교수들의 경우 여전히 학과의 틀이 높습니다. 학과간 벽이 허물어진다면 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글로벌 창의 융합 교육이 가능해지리라 판단합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작성한 자기설계 융합교육(Self Designed Integrated Study)이 가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더

단기 어학연수, Honors Program, KOTRA 인턴십,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인턴십, 다양한 국내의 기업 인턴십 등을 통해 대학에서 갖고 닦은 글로벌 융합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대학은 기존 학제를 과감히 혁신해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 신설학과를 만들었다. Language & 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AI & Data 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Digital Contents 학부, Tourism & Wellness 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등을 신설하고, 기존 바이오메디컬공학부와 글로벌 스포츠산업학부의 정원을 늘려 기존 융합 교육 체제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된 것이다. 장봉익 미래위원장은 “신설되는 첨단 학부들과 기존의 글로벌 교육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더 큰 기회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육 확대, 강화해 글로벌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장봉익 미래위원장은 이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좀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글로벌 융합 인재 교육이 이뤄지리라 본다.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라고 합니다. 기억은 걸어온 길을 되돌아 가보는 것이나, 상상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가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erra Incognita(새로운 땅)에 길을 내고 다지는 원대한 여정에 필요한 희망의 도구를 한국외대가 구상하고, 한국외대가 실시할 글로벌 창의 융합 인재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외대의 역사적인 유산을 더욱 키워나가고 자신의 꿈을 글로벌 무대에서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인류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동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H

U



HUFS INTERVIEW

십시일반, 모교에 보내는 동문회의 마음
영어대학 동문회
베트남 재하노이 동문회

언론과 윤리
김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Dream(Lions) come true
김정인 ELLT 19



F

S

시대를 앞서가는 HUFSSan을 위해

영어대학 동문회

- **영어대학 동문회에서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계기와 소감을 들려주세요.**

우리 영어대학 동문은 외대 재학생 후배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항상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싶어 합니다. 후배들을 격려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학교 발전기금 기부는 모교에 대한 사랑이며, 이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주력하고 애쓰는 것이 자녀 교육 문제이듯, 영어대학 동문회도 '나를 따라 학교에 다니는 후배들'에 대한 지원과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학교 발전기금 기부이며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번 학기 장학금은 지난 학기에 비해 50% 이상 대폭 늘렸으며, 다음 학기에는 장학생 숫자와 금액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더 많은 동문이 기부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기부 동참이 앞으로 계속돼 영어대학의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영어대학 동문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어대학 동문회는 1989년 초 용을식 선배님을 비롯한 몇몇 선배님들의 주도로 설립됐으며, 이제 만 34년이 지났습니다. 1954년 외국어대학 개교와 함께 외국어학부 내 단위 학과로 설립된 영어과가 서양어대학 영어학부를 거쳐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성장해 오늘날 영어대학의 ELLT학과, 영미문학·문화학과, EICC학과 3개 학과 체제로 확립됐습니다. 그동안 1958년 1기 졸업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1,800명의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영어대학 동문회는 주영립 동문(영어 79)이 회장으로 동문화를 이끌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의 CEO나 금융 산업의 수장, 언론,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에 포진해 외대의 명성을 높이고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훌쩍 넘긴 연륜을 자랑하는 외대 영어대학 동문회는 또 다시 현 시대 정신으로 재무장해 모교의 발전에 견인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영어대학 동문회에게 있어 외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흔히 하는 말 중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후 처음으로 자유 선택을 해서 들어온 학교가 외대입니다. 청춘의 열기와 혈기와 흥분이 함께 서린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명문대학이 왜 명문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동문이 많은 학교가 명문대학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순간부터 외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기부한 학교 발전기금이 어떻게 쓰이길 바랍니다까?**

학교 발전기금을 낸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기금이 재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길 바랄 것으로 생각하며, 모교 지원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후배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장학금을 받아 장학금이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장학금의 규모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동문의 후배들에 대한 호의와 성원에 힘입어 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기부 사업이 순조롭게 잘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 **외대 성장 및 발전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대학이 '인재 육성'이라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냉엄한 현실 속에 동문도 자신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하리라 봅니다. 외대가 박정운 총장님을 중심으로 학제를 개편하고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24학년도에 서울캠퍼스에

Language & AI융합학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를, 글로벌캠퍼스에 AI데이터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기후변화융합전공을 신설하게 되었다 하니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모교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고등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고 재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외대 7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아무쪼록 계획한 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시대를 앞서가는 외대인을 계속 길러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동문회도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영어대학 동문회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영어대학 동문회는 모교 후배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동문간 친목 도모 및 교류 활성화, 강연회 및 포럼 개최, 등반 대회 및 동문회장배 골프 대회 개최, 자랑스런 외영인상 시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회는 무엇보다 즐겁고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동문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동문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모교 지원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십시일반, 모교에 보내는 동문회의 마음

한국외대 영어대학 동문회와 베트남 재하노이 동문회가
장학기금 및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멀리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교 발전을 염원하는
영어대학 동문회와 베트남 재하노이 동문회의 진심을 들여보았다.





우리 모두 HUFSan, 후배들을 위한 응원

베트남 재하노이 동문회

- **베트남 재하노이 동문회(이하 하노이동문회)에서 발전기금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계기와 소감을 들려주세요.
올해 1월 한국외대와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산하 외국어대학간 MOU 행사를 위해 박정운 총장님께서 하노이에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시 총장님 및 교수단 일동과 하노이동문회 동문간 교류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모교 발전을 위해 선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심하다 학교 발전기금 모금으로 중지를 모으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금 모금을 시작했고, 예상보다 더 많은 동문이 선뜻 후배들을 위해 나서 주었습니다. 두 달에 걸쳐 총 40명의 동문이 1,500만원을 모았습니다. 이번 모금 활동은 하노이동문회 입장에서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선 활동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는 동문의 열정적인 애교심을 확인하는 기회였고, 모교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활동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 **하노이동문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노이동문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0년도 초반입니다. 2000년 들어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되면서 외대 동문의 베트남 진출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하노이동문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총 85명(실제 거주 인원)의 회원이 활동합니다. 안성구 동문(베트남어 88)이 회장으로 동문회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5명의 총무단이 실질적인 동문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노이동문회는 전체 동문 모임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개최하며, 80년대 초반 학번부터 60년대 학번까지 원로 선배간 개별적인 친목 모임(수리어)을 비정기적으로 엽니다. 여기에 매월 1회 동문이 모여서 함께하는 골프 동호 모임인 외골회(외대 골프회)를 운영합니다. 이같은 동문회 활동에는 하노이에서 활동하는 동문뿐 아니라 하노이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재학생들, 업무차 하노이에 출장 온 동문 등 하노이에 있는 외대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음악을 좋아하는 동문이 모여 밴드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총동문회에서 총무단을 개설한 후 주기적으로 동문 소식을 알리는 뉴스레터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 **하노이동문회에게 있어 외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외대의 위상은 해외를 나가 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동문이 베트남에 진출한 후에야 한국에서 알지 못했던 외대의 위력이 어떠한지 피부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해외로 나왔을 때 만나게 되는 외대 동문의 수가 많고, 동문은 생각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활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 만큼 홀로 해외 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해외 생활에서 동문을 만나면 같은 교정에서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 모두 HUFSan이라는 동질감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동문회에 모이는 동문은 학번, 학과 관계없이 모인 자리에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 **기부한 학교 발전기금이 어떻게 쓰이길 바랍니다까?**

이번 발전기금은 해외에서 발로 뛰고 있는 선배들이 후에 또 다른 외대의 발전 동력이 되어줄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금한 기금입니다. 발전기금은 모교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에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외대 후배들을 글로벌 인재로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곳에 저희 하노이동문회의 작은 정성이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외대 성장 및 발전과 관련해 학교 측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많은 동문이 외대 특장점으로 외국어 특기와 도전하는 용기를 꼽습니다. 외대에서 여러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만큼 후배들도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욱 많은 동문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와 발맞춰 외대에서도 재학생들에게 더욱 넓은 마음으로 해외 진출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반과 시설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이유로 하노이를 떠난 동문 중 많은 분들이 동고동락한 하노이동문회를 잊지 않고 출장 또는 여행으로 하노이를 찾았을 때 동문회를 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로 오는 동문은 가장 먼저 하노이동문회의 문을 두드리주길 바랍니다.

- **하노이동문회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정기 모임, 동문 골프 동호회 모임 등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문회 회장 및 운영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학번간 또는 선후배간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세대간 화합을 위한 노력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세계 어느 지역의 외대 동문회보다 더 단결력 있고 화합되는 동문회, 체계적인 동문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은 한해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지난 세월 동안 하노이에서 활동했던 동문의 발자취를 간략히 정리해볼 계획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번 학교 발전기금 모금과 같이 많은 동문의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문제없이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론과 윤리

제22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김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제22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소감을 들려주세요.

권위 있는 철우언론법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게 과분한 상이기도 하고 또 이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한 다른 분들이 제신데 제가 먼저 받게 되어 겸연쩍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학문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 이번에 논문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개념 분석과 국내·외 윤리강령 검토를 중심으로'를 발표했습니다. 논문을 쓰게 된 계기와 논문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올해 초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 씨와 다수의 기자들이 돈거래를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제가 한겨레신문사에서 꾸린 '진상조사위원회'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언론 현장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언론인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체감했고, 그래서 쓰게 된 논문입니다.

논문을 통해 국내·외 학술 논의에서 이해충돌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개념적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살핀 후 국내·외 언론윤리 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분석했습니다. 언론의 이해충돌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눠 국내·외 언론윤리 강령을 비교한 결과, 국내 언론윤리 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의 거의 모두는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 그리고 언론사의 경제적 이해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한 세부 규정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정치·사회적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을 국내 언론윤리 강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인)은 이해충돌의 개념을 '관계와 신뢰에 방점을 두는 전문직/공공서비스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고, 또 실질적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로 비취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구 분야 중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며, 이를 꾸준히 연구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제가 13년의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외대로 자리를 옮긴 게 2013년 가을인데요, 한국에 온 이후 지난 10여 년간 가장 큰 관심을 두었던 연구 분야는 혐오표현(hate speech)입니다. 또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내용 규제, 언론윤리 등에도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고리즘/인공지능의 윤리적 설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편이라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걸 즐깁니다. 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언론 분야의 문제적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무얼 이야기해주시고 다는 학생들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나만 확고한 목표가 없는 건 아닌가 또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등을 토로할 때가 많아요. 그때 '괜찮다. 지금은 이것저것 많이 읽고 보고 해봐라. 즐겁게 놀아라'라는 말을 해줍니다. 또 '내가 세상을 좀더 살아보니, 세상일이라는 게 뜻한대로 풀리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도 있더라. 다만 기회가 있을 때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지내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들려주세요.

앞으로 어떤 주제를 연구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연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유명한 정지아 작가의 단편집을 여름에 읽었는데, 그 단편집에 실린 '작가의 말'의 일부를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작가는 스물다섯살에는 인생을 안다고 자부했고 서른다섯살에는 소설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거들먹거렸는데 마흔아홉살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이제 논문 쓰는 게 낯날이 어렵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쓰는 소설이 자신이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 몇 가지만큼이라도 가치가 있을까 부끄러워진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게 하는 쌀 같은 소설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살게 하는 쌀 같은 연구, 그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연구를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김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논문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개념 분석과 국내·외 윤리강령 검토를 중심으로'로 (사)한국언론법학회가 수상하는 제22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민정 교수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와 연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들려주었다.



Dream(Lions) come true



2023 드림 라이언즈 그랑프리 수상
김정인 ELLT 19

한국외대 ELLT학과 김정인 학생이 칸 라이언즈 코리아가 주최한 대학생 공모전 '2023 드림 라이언즈(DREAM LIONS)'에서 최고상을 수상해 주목받았다. 김정인 학생에게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 2023 드림 라이언즈에서 최고상인 그랑프리(GRAND PRIX)를 수상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특히 2023 드림 라이언즈를 통해 저희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준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공모전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헥토헬스케어의 유산균 브랜드 '드시모네'를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와 메시지, 이와 관련된 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포화 상태인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최고가인 드시모네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오쓰몰 이문' 사례를 활용해 같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드시모네의 독보적인 제품력과 소비자 후기를 바탕으로 이미 프리미엄 이미지가 형성된 사실을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드시모네의 유저를 현명한 '프로'로 강조하는, 프리미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프로답게 프리미엄'이라는 카피로 TV 광고 시안을 제작하고, 요거하우스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거나 드시모네의 로고를 '%(프로)'로 변형하는 등 크리에이티브를 다양한 채널에 집행하는 IMC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 공모전 참가 결정부터 수상까지 과정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친구로부터 이번 공모전을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고 제안받았을 때입니다. 광고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처음 광고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목표가 1년 후 '공모전에 같이 나가고 싶은' 동아리가 끝나도 같이 협업하고 싶은 팀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순간은 저희 팀이 비대면 회의를 하던 때입니다. 그때 문득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단 한 순간도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가던 저희 모습이 기억납니다.

● 이종전공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 강의를 듣고 연합 광고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은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이종전공 수업에서 <광고캠페인전략론> 강의를 들었는데, 광고를 기획하는 전 과정을 배우며 직접 실습했습니다. 수업 중 프로젝트를 할 때 팀원들과 새벽까지 열심히 회의하며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습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광고를 만들어 설득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껴 광고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결심

했습니다. 이후 휴학하며 활동했던 연합 동아리 '오프더광고쟁이'에서는 좀더 현업에 가까운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한달에 한번 팀을 꾸려 경쟁 PT를 하는데, 특별한 점은 현직 멘토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활동하는 동안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요소, 장표 순서, 단어 하나, 심지어 조사 하나까지 모두 광고주를 설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공모전에서 기획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잡을 수 있었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 공모전 수상으로 6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2023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에 참가한 소감은 어떻게습니까?

광고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학생 자격으로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분위기였습니다. 수상할 때마다 해당 광고 회사 팀은 무대로 나와 뜨거운 포옹을 했고, 한 광고 회사의 대표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쏟아붓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크리에이티브 산업 속에 제가 속해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한 캠페인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살리기 위해 문자를 개발한 캠페인이었는데, 수상 무대에 실제로 해당 소수 민족 사람들이 등장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나 이익을 위한 것이겠지만, 광고 캠페인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에 대해 들려주세요.

광고업에 종사하려면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광고를 배워나가면서 항상 다른 각도에서 문제와 현상을 바라보려는 자극을 주고 싶습니다. 광고는 수많은 사람에게 도달되는 만큼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고의 디테일한 부분 하나 하나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그 영향력을 실감하며 섬세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광고 기획자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도서관은 소통의 공간이다.
학생을 비롯해 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는다.
조희문 도서관장을 만나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역할에 관해 물었다.

스마트한 도서관,

도서관이 네트워킹스페이스가 되는 경험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는 지난 2020년 4월 개관한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은 통유리창 너머로 탁 트인 전경을 보며 독서와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스터디라운지'로 불리는 로비에서는 콘서트, 북토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도서관' 하면 책장 넘기는 소리만 나야 할 것 같은데 콘서트라니 잘 가늠이 되지 않는다. 조희문 도서관장에게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물었다.

“외대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조용한 곳'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학생들이 오래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했습니다. 공연, 강연 등을 하고 들을 수 있도록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었고, 소란스러운 것이 싫은 사람들을 위해 노트북 등 소리나는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도서관 곳곳에 숨은 곳이 많은데 학생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희문 도서관장은 서울캠퍼스의 도서관이 미국 IT 기업인 구글, 애플과 같은 네트워킹스페이스가 되길 원한다.

“지금 구글, 애플을 비롯해 국내 기업인 삼성 등이 모두 사옥을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공간을 캠퍼스라 일컫는 거죠.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네트워킹을 하는데,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것이 미래 창업으로 이어집니다.”

조희문 서울캠퍼스 도서관장

캠퍼스의 문화 공간으로

'공간'에 주목하게 된 이유

학생들이나 한국외대를 찾은 이들 모두 도서관의 로비를 가장 인상적인 공간으로 꼽는다. 다른 대학 도서관과 다른 느낌을 주는 공감각적 스페이스가 도서관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이다. 로비는 도서관을 리디자인할 때부터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해 오픈된 형태로 고안됐다. 또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책을 줄였다. 실물 도서 대신 DB양을 늘리고 책은 수장고에 배치했다.

“수장고에 책 100만여 권을 분산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책은 미리 한국외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주문하면 다음날 무인 대출 반납함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세미나룸을 빌리거나 도서관 출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덕분에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 셈이죠.”

지역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교류

도서관에 들어서면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일회성이 아닌 항상 그 자리에 놓여있는 상설 피아노다.

“처음 외대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소리가 나는 피아노라니?' 하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콘서트를 합니다.”

서울캠퍼스 도서관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수림문화재단과 함께 '찾아가는 콘서트 2023'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 교수, 교직원 등 교내 많은 구성원이 이 콘서트를 통해 도서관이 복합 문화 공간이 된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수림문화재단은 문화 예술이 융성한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합니다. 한국외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클래식 콘서트를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프로그램과 외대의 공간이 만나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클래식 콘서트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외대다움' 활용해 세계를 만나다

도서관은 '찾아가는 콘서트' 외에 'HUFStory 북토크'도 진행한다. 북토크는 '외대인에게 직접 듣는 책 이야기'를 콘셉트로 독일, 영미문학, 태국문학, 독일영화,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로부터 저서 또는 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깊숙이 알아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한국외대에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과 교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전공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저서와 번역서를 내는데, 정작 학생들과 같이 교류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북토크를 기회 삼아 교수, 학생, 콘텐츠, 공간 등 외대다운 인프라를 이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희문 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외대다움을 활용해 학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 말한다. 한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와 관련해 '해당 국가 주간'을 만들어 그에 대한 전시, 행사를 여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외대가 공공 문화 외교의 장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희문 도서관장이 학과를 넘어 대사관, 문화원과 함께 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조희문 도서관장은 도서관이 세계로 가는 포털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도서관과 학교, 학생, 교수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한국외대에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듣고 경험하면서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이건 뭐지?'라는 궁금증이 생긴 순간부터 이미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답변을 찾아가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경험한 세계

김태정 학생은 방학 중 ‘2023학년도 여름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토론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IEP(International English Program)를 경험했고, IEP 전후로 인근 도시와 미국, 멕시코 등지를 여행했다. 그에게 이번 방학 때 쌓은 경험은 인생의 동기 부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태정 화학 19

방학 활용해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 신청

군 휴학을 마치고 복학한 시점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모두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간 뒤였다. 학교도 대면 수업을 했고, 교환학생, 7+1 프로그램, 해외 봉사, 해외 단기 연수 등 국외 교류 프로그램들도 제약 없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학한 내게 남은 건 3학기이고 마지막 학기는 본교에서 수료해야 하므로 사실상 교환학생과 7+1 프로그램에는 지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방학을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영국, 미국 등 다양한 후보지가 있었는데, 캐나다 토론토가 가장 도심 지역이라 7월 한 달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로 했다.

IEP 중 Business English 수업 들어

나는 4주간 토론토대학교 New College에서 영어 수업을 듣는 IEP(International English Program)에 참가했다. Summer IEP는 7, 8월 두 번 진행된다. 클래스는 Academic English, Business English, General English로 3가지다. Academic English는 글을 읽고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는 수업, Business English는 금융·경제·주식·협상 등에 대해 배우는 수업, General English는 같은 반 학생들과 일상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이다. 클래스별로 수준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개강 전 원하는 클래스를 선택하고 첫날 영어 레벨테스트를 본 뒤 수준별로 반이 개설된다.

이번 IEP는 Academic 두 반, Business 한 반, General 세 반으로 총 6반이었다. 클래스와 관계없이 IEP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은 마지막 주차에 반드시 본인 이 준비한 주제로 다른 반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 나는 Business English 수업을 신청했고, 마지막 주에 ‘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INTERNATIONAL ENGLISH PROGRAM

IN TORONTO



IEP 전후로 떠난 여행도 무척 소중한 경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좋았던 점은 수업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밖에 없어 자유시간이 아주 많다는 것이었다. 토론토대학교는 토론토 도시 한가운데 있어 정오 이후 관광, 피크닉, 쇼핑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인근에 여행할만한 다른 도시도 많아서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가까운 곳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이 있고, 조금 멀리 뉴욕까지 여행하는 친구도 꽤 있었다. IEP를 도와주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들이 거의 매일 서로 다른 액티비티(activity)를 진행했다. 스스로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돌아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외국인 친구들과 토론토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다.

Summer IEP는 7, 8월에 진행하는데 이때 토론토의 날씨가 정말 좋다. 낮 기온은 25~30도로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지만 습하지 않아 한국보다 체감 온도가 낮다. 수업이 4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IEP 전후로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 나는 수업이 끝나는 7월 29일~8월 27일 칸쿤, 멕시코시티,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캘거리, 밴프, 밴쿠버 여행을 했는데, 이것이 토론토에서 보냈던 시간 만큼 소중한 경험이었다. 다만 4주 기준으로 수업료가 약 200만원, 기숙사비가 약 100만원으로 한국과 비교하면 조금 비싼 것이 아쉬웠다.

힘들 때마다 인생의 동기 부여가 될 듯

이번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IEP에는 또래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국, 일본, 대만,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등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전공을 공부했고, 각자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다양한 사람들과 매일 영어로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다 보니 내가 한국이라는 정말 작은 우물 안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 돌아온 뒤 어떻게 해야 이 작은 우물에서 다시 탈출할 수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더라도 넓은 식견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주변 친구 대부분은 방학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본인의 진로를 위해 공부한다. 출국하면서 나는 ‘이번 방학을 여행하고 즐기면서 보내도 될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오니 스스로 확실히 이전보다 성장했음을 느낀다. 가끔은 공부라는 이론보다 경험이라는 실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방학 때 쌓은 경험과 추억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내 인생의 동기 부여가 될 것 같다.



I am HUFSan



오로지
잼버리 참가자들만을
생각했던 시간

한국외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참가자지원TFT
(사진 왼쪽부터)

박식원 인사혁신팀장

옥진호 국제학사 학사운영팀장

최태경 HUFs Dorm 학사운영팀장

김석중 글로벌캠퍼스 총괄지원팀장

지난 8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는 잼버리참가자지원TFT를 꾸리고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을 지원했다.

최태경 HUFs Dorm 학사운영팀장, 옥진호 국제학사 학사운영팀장, 김석중 글로벌캠퍼스 총괄지원팀장과 박식원 인사혁신팀장을 만나 긴박했던 순간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서울캠퍼스는 스위스 참가자,
글로벌캠퍼스는 대만 참가자 지원

한국외대는 8월 개최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중 서울캠퍼스에서 스위스 참가자 189명을, 글로벌캠퍼스에서 대만 참가자 498명을 지원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원 요청이 들어왔지만, 춘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다.

“당일까지 어떤 나라의 참가자들이 오는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캠퍼스는 김태성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기숙사운영팀, 학생지원팀, 총괄지원팀, 국제교류팀 등으로 구성된 한국외대 잼버리참가자지원TFT를 구성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서울캠퍼스는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등 대학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잼버리 참가자들이 도착하기 전 기숙사에 생수와 휴지 등 생활용품 을 채워 넣는 등 준비를 마쳤다. 한편 글로벌캠퍼스는 500명에 달하는 대 규모 참가자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글로벌캠퍼스에는 대만 잼버리 팀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400명이 온다고 전달받았는데 예상보다 100여명 많은 총 498명이 배정됐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이동 시간도 만만치 않게 소요돼 참가자들이 밤늦게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글로벌캠퍼스는 기숙사를 중심으로 참가자 맞을 준비를 하고 행정지원팀에서 협업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상철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삼고 총괄지원팀, 시설관리팀, 건설팀 담당자들이 상주하며 현장을 지원했습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박식원
인사혁신팀장

한국외대는 잼버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숙소뿐만 아니라 식사 및 통역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무더위와 녹록지 못한 환경에서 힘들었던 만큼 한국외대에서 머무는 동안 치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마음이 컸다. 박식원 인사혁신팀장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참가자의 80% 이상이 14~17세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리드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가자들에게 ‘나를 아파라고 생각하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학 교직원들 모두 부모가 된 것처럼 진정성 있게 참가자들을 대했기에 긴급한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었다. 오는 길에 경미한 부상을 당한 참가자가 있었고,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참가자들이 한 그룹에 자리해 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캠퍼스에는 스위스 참가자들이 머물렀는데, 한 그룹 내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카우트 리더들도 어리고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단일화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채식주의자, 할랄, 글루텐프리 같은 특별 식단도 마련

서로 다른 식문화를 지닌 참가자들을 위한 식단과 채식주의자, 할랄, 글루텐프리와 같은 특별 식단을 마련하는 것도 도전이었다.

“글로벌캠퍼스에는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이틀 만에 498명의 식사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급히 준비한 끝에 3일째부터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고, 간식 등은 김석중 글로벌캠퍼스 총괄지원팀장이 용인시청 예산과와 협의한 끝에 다량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최태경
HUF Dorm 학사운영팀장

최태경 HUF Dorm 학사운영팀장은 관련 보도가 된 이후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도 끊이지 않았으며 감사를 전했다.

“처갓집 양념통닭과 같은 브랜드부터 수제 피자 트럭까지 글로벌캠퍼스에 머무르는 참가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밤에도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하고, 프라이드치킨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트럭 4대를 동원해 즉석에서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대만의 경우 같은 동양권 식문화를 가진 터라 식단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유럽 참가자를 맞이해야 하는 서울캠퍼스는 이야기가 달랐다.

“학생식당에 식사 준비를 부탁했는데, 당일까지 어느 나라 참가자가 오는지 모르는 시점에서 메뉴를 준비하긴 어려웠습니다. 보통 2주 전에 식단을 정하고 식자재를 구입하므로 채식, 할랄, 글루텐프리와 같은 특별 식단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학생식당에서 힘써준 덕분에 참가자 입소 다음날 저녁부터 학생식당에서 모든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도움도 있었다. 참가자들의 영양 상태를 고려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보급하고자 청량리종합시장에 구매를 문의했는데, 흔쾌히 무상 제공해 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온 것이다.

“우리 대학은 평소 청량리종합시장과 MOU를 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구상해왔습니다. 잼버리 참가자 지원을 위해 청과를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좋은 일이니 돕고 싶다’는 대답과 함께 약 200인분 상당의 신선한 제철 과일과 음료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예상대로 잼버리 참가자들이 크게 만족스러워했고, 스위스의 일부 참가자들은 이틀이나 연장해 머물다 갔습니다.”



한국외대 인프라로 짝 채운 문화 프로그램

태풍 복상으로 인해 잼버리 참가자들이 실내에 머무는 일이 많아진 만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일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7개 기관에 분산돼 머무는 약 5000명의 참가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참가자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대만 문화 예술 콘텐츠에 조예가 깊은 교수님께 추천받아 대만 영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상영했습니다. 이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인 공유식 교수가 ‘한국문화 및 한국대만관계’에 대한 특강을 중국어로 진행했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진 외대였기에 갑작스러운 일정에도 관련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잼버리 참가자 지원에 나선 것은 대학본부만이 아니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도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생들은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와 통역을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짐을 함께 내려주며 원활한 수속을 도왔다.

“우리 대학 학생·인재개발처와 국제교류처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팀에서 학생들을 소개해줬고, 다음날부터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연합회와 협의해 참가자들이 학교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짜고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과 일정이 있어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상주하면서 스위스 참가자들의 언어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독일어와 영어, 프랑스어가 가능한 학생들이었기에 좀더 섬세하게 잼버리 참가자들을 케어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중
글로벌캠퍼스 총괄지원팀장

김석중 글로벌캠퍼스 총괄지원팀장은 글로벌캠퍼스 역시 학생들의 도움이 컸다고 전했다.

“방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이 잼버리 참가자가 도착한 날 통역을 도와주고 참가자들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주었습니다. 더불어 기숙사 내부 안내, 객실 배정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두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던 성공

비상 상황이었지만 한국외대는 갑작스러운 잼버리 참가자 지원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번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박식원 인사혁신팀장은 사전 고지를 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너그럽게 양해해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급작스럽게 준비하다 보니 기숙사의 한층 전체를 바우지 못하고 중간 중간 비어 있는 방에 잼버리 참가자들이 머물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간혹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줘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잼버리 참가자들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한국에서 아빠처럼 돌봐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옥진호
국제학사 학사운영팀장

이어 옥진호 국제학사 학사운영팀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해 잼버리 참가자 지원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었고, 작은 사고도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을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석중 글로벌캠퍼스 총괄지원팀장은 잼버리 참가자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 참가자들이 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기관 등에 분산돼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대표부는 SNS에 외대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가자들 또한 대만에 꼭 오라며 초청해주었고요. 머물렀던 참가자들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됐길 바라고, 그들이 나중에 학생으로 외대를 찾아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를 바라보며



강준영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중국어통번역학과 학과장
국제지역연구센터장

한국 경제에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시각 대두

최근 중국 경제 위기설이 제기되면서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자처하며 야심 찬 전면적인 경제 재개(re-opening)를 선언했음에도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중국 경제는 상반기 5.5%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에서 상위 1, 2, 3위 기업이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고, 중국 정부의 대응도 미진해 전반적인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세 축인 내수·투자·수출 분야의 세부 내용이 좋지 않다. 중국 경제 성장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수 소비 분야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7월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자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 위기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조짐이 2008년의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먼저 중국 금융위기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이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 적어도 중국 부동산 기업의 자금원이나 파생 상품은 과거 리먼브러더스 경우처럼 국제자본이 개입돼 있지 않다.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가 통제 범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이번 상황을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자 하는 구조조정 의도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중국 경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동력 확보 같은 기존의 발전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또 국제 경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科技社會主義)’라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가 큰 문제

그러나 중국 앞에 펼쳐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 질서가 변곡점을 맞으면서 공급망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또,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 제한이 확대되는 구조적 압박이 강화되면서 신성장 동력 산업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다. 8월 9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첨단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 제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시행된 지나친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경제 전반이 다중 충격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빠진 형국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

심리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더 큰 문제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다. 거시경제의 큰 틀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해 궁극적으로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경제 문제의 정치화’라는 이데올로기적 속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대외 개방의 지속과 확대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이 내포된 반간첩법(反間諜法)이나 대외관계법(對外關係法)을 발동시켰다. 또, 중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여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스스로 국내외적 신뢰를 저해시켜 신규 투자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안정’ 기반의 통제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다.

경쟁력 갖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가치 창출이 관건

이러한 중국 상황을 앞에 두고 한국 경제는 고민이 많다. 이제 중국은 끝났으니 ‘탈(脫) 중국’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일시적 현상이라면서 중국 시장 가치를 염두에 둔 지속적 접근을 강조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차이나리스크의 확대는 분명히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지만, 기회와 위기는 병존하기 마련이다.

무조건적 중국 시장 포기나 과거지향적 접근은 모두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한·중 경제 교류 패턴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지만, 경제에서 시장 원리는 늘 존재하며 그 효용성에 따라 시장은 재편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랬듯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가치 창출이 관건이다.



H

U

F

S

HUFS NEWS

[HUFS Topics](#)

[HUFS Today](#)

[HUFS Academies](#)

[HUFS Professors](#)

[New HUFSan](#)

[HUFS Institutes](#)

[CUFS News](#)



2023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8월 18일(금) 우리 대학 2023년 후기 학위수여식이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서울캠퍼스는 오바마홀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글로벌캠퍼스는 총 9개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1,898명(학사 1,494명, 석·박사 404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박정운 총장과 교무위원들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박정운 총장은 축사에서 “모교에서 갈고닦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해 세계를 무대로 인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해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양캠퍼스에는 가족, 친지, 선후배 등 내빈이 참석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축하의 자리를 함께 했다.



한국외대-HD한국조선해양, 글로벌 지역 전문 비즈니스 인력 양성 위해 맞손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김민정)는 7월 5일(수) HD한국조선해양(대표이사 부회장 가삼현)과 외국어·글로벌 특화 인력 채용 활성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과 HD한국조선해양은 채용연계형 표준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외국어·글로벌 특화 인력 채용(가칭 'H-Track'), HD한국조선해양 임직원 대상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HD한국조선해양 직장 외국인 대상 교안 및 자료 번역 감수와 통역 지원, HD한국조선해양 직장 외국인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지원, 교육과정 공동 개발(미래 신사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목표) 등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HD한국조선해양에서는 채용연계형 표준현장실습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30명의 우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H-Track을 마련해 연간 30명의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일정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덕술 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 회장, 학교 발전기금 추가 3억원 약정

7월 17일(월) 김덕술(일본어 81) 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 회장이 우리 대학을 방문해 박정운 총장을 예방하고 학교 발전기금 3억원을 약정했다. 김덕술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우리 대학 스마트도서관 건립기금 및 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씩 기탁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학과 발전기금 기부 등 모교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하며 현재까지 5억원이 넘는 기금을 학교 발전을 위해 회사해오고 있다. 이날 모교를 찾은 김덕술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딘가, 또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고,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면서 “이번 약정을 통해 우리 대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리더를 배출해내는 교육 기관으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박정운 총장 외 장봉의 미래위원회 위원장, 오종진 대외협력처장,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외대-KOTRA, 글로벌 지역통상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KOTRA(사장 유정열)와 8월 25일(금) 국제지역 통상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외대의 국제지역학 전문성과 KOTRA의 글로벌 현장 경험 및 네트워크를 결합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지역 전문성을 갖춘 비즈니스 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체결됐다. 탈 세계화(Deglobalization) 시대의 지역화(Regionalization)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내 ‘한국국제지역전략학 석사과정(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을 신설해 공동 운영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해외 권역별·국가별 지역 연구 심화 과정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 탄소 중립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년간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KOTRA 출신 인력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생동감 있는 현장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신설학과에 대한 모집 요강을 확정해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모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외대, 2023 모의 유럽연합 이사회 개최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흥)는 주한 EU 대표부 및 고려대, 연세대 EU센터(이상 대학명 가나다 순)와 공동으로 5월 25일(목)~26일(금) 서울캠퍼스 미네르바콤플렉스 오바마홀에서 '2023 모의 유럽연합 이사회(Model European Union)'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EU 수교 60주년을 맞아 'Climate Change(영어 부문)', 'Digital Cooperation(한국어 부문)'을 주제로 두 세션이 동시에 진행됐다. 회원국을 대표하는 장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종합된 의견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EU 각료이사회회의 실제 진행 상황을 그대로 구현했다.



아랍어과, 2023 한-아랍 그림책 번역대회 우승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 이수인, 박수현 학생이 한국-아랍 소사이어티와 외교부 등이 공동 주최한 2023 한-아랍 그림책 번역대회에서 국내 부문 1위와 2위에 입상했다. 우리나라 그림책 중 난이도 상, 중, 하로 나눠 지정된 10권 중 한 권을 선택해 아랍어로 번역하는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학 아랍어과 이수인 학생과 박수현 학생은 각각 난이도 상에 지정된 '내가 예쁘다고'를 번역해 국내 5개 대학 아랍어 전공 학생 중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수인 학생은 시상식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외대, 세계관세기구(WCO)-관세청 공동 제1회 SIEs(Small Islands Economies) 관세당국 Young Leader급 장학프로그램 입학식 개최

우리 대학은 6월 5일(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관세청과 공동으로 SIEs 관세당국 영리더급을 대상으로 제1회 장학프로그램(SIEs Scholarship Programme)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세관협력기금(CCF-K)을 활용해 우리 대학과 WCO 및 관세청이 6월 5일(월)~8월 25일(금) 12주 동안 진행했다. 10개국 관리들은 세관 업무와 관련된 경영·경제·무역·법률·관세행정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고,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는 기회를 누렸다.



한국외대, '故 이진아 20주기 기념 음악회' 및 서대문구와 업무 협약식 개최

우리 대학은 6월 3일(토) 이진아기념도서관과 공동으로 '故 이진아(스페인어 00) 동문을 추모하며 서대문구와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은 2003년 미국에서 여학연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을 위해 유가족이 도서관 건립비 50억원을 서울시에 기부해 건립된 도서관이다. 우리 대학과 서대문구의 협약식은 '故 이진아 동문의 추모 20주기를 기념해 열린 음악회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 대학은 이진아기념도서관에 지식·정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우수한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했다.



독일어과 양나나 학생, 한국투자증권 '제5회 리서치챌린지' 대상 수상

우리 대학 독일어과 양나나(독일어 19) 학생이 6월 9일(금)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제5회 리서치챌린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156명의 대학생이 지원해 열린 경쟁을 펼쳤다. 이중 서류 전형과 시니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통해 15개 보고서가 선발됐고, 이후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1개 팀(2명)과 개인 5명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 대학 양나나 학생은 '백야행(白夜行): 안개 속에서 눈을 따라'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제시해 대상을 차지했다.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사우디아라비아 타슈킬 출판사 MOU 체결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원장 임항욱) 한아과(주임교수 박순례)는 6월 15일(목)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린 코엑스 A&B1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타슈킬 출판사(총괄 책임자 무오잡 알삼마리)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목표 실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문학출판번역국이 진행하는 'Tarjim Mubadara(번역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이날 체결한 양해 각서에 따라 양기관은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도서 15권, 한국 도서 15권 등 총 30권의 도서를 번역, 출판할 계획이다.



세자이 톨가 쉴쉬르 주한 튀르키예 부대사, 한국외대 방문...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논의

6월 16일(금) 세자이 톨가 쉴쉬르(Sezai Tolga ŞİMŞİR) 주한 튀르키예 부대사와 오지향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행정관이 우리 대학을 방문해 양국간 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과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학과장 오종진 대외협력처장, 이난야 교수(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가 배석했다. 톨가 부대사는 올해 1월에 부임 후, 그간 튀르키예 대지진과 선거 및 다양한 현지 현안으로 인해 우리 대학을 바로 방문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 한국과의 다양한 협력과 제휴를 위해 공조하자고 언급하였다.



아랍어과, 사우디아라비아 킹살만 학술원 주관 아랍어 교수법 특강 개최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는 6월 19일(월)~22일(목) 서울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킹살만 학술원 주관 아랍어 교수법 특강을 국내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아랍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강사를 주요 대상으로, 아랍어 강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수법과 학생들의 언어 역량 평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아랍어 교육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윤은경 학과장은 "한국 내 아랍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했다.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한국외대 방문... 아랍어 교육 협력 방안 논의

6월 19일(월) 사미 알사드한(Sami M. Alsadhan)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우리 대학을 방문해 박정운 총장을 예방하고 양국간 교육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사미 대사는 "한국외대가 아랍어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한류의 세계적인 성장과 맞물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정운 총장은 "한국외대가 이러한 협력 강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통역사 사론 최 초청 '2023 HUFs 특강' 개최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김민정)는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6월 23일(금) 도서관 할라아쿠쉬 넷홀에서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선택한 통역사'로도 잘 알려진 사론 최를 초청해 '2023 HUFs 특강'을 개최했다. 사론 최는 ① 바이링구얼로서의 모국어와 외국어: 언어의 불가능성, ② 영화 문화계 통번역: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에 따른 통번역의 새로운 역할, ③ 예술로서 통·번역: 축적과 비용 등 총 세 가지 주제로 다채롭게 특강을 준비했고, 현장 강연과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Zoom) 실시간 송출 및 SNS 라이브를 통해 220여 명에 달하는 학생이 참가했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원장 이은구, 이하 '특육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교육장 이종민, 이하 '지원청')은 6월 30일(금) 특수외국어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협약에 따라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과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평택 학생들의 맞춤형 세계시민 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상호 협력 ▶지속적인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공유의 장 마련 ▶기타 기관과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을 협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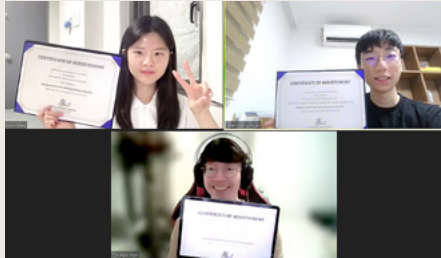
융합인재학부 아랍어통번역세부모듈,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문화원 방문

우리 대학 융합인재학부(학부장 김상수) 아랍어통번역세부모듈(주임교수 최진영) 학생들이 6월 27일(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문화원을 방문해 압둘아지즈 압둘라흐만 알다엘(Abdulaziz Abdulrahman Aldayel) 원장을 예방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교육의 역사에 대한 압둘아지즈 원장의 특강 이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 개방 정책과 아랍어 학습법,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유학 등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상호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아랍어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기업체 인사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김민정)는 7월 8일(토) 교원그룹 교원비전센터(가평)에서 대학 평판도 향상 및 기업 인사관계자와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기업 인사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모레퍼시픽, 일진그룹,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쓰리엠주식회사, 신성통상(주), 대상주식회사 등 총 30여 개 기업의 인사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관계자는 “외국어를 각 기업에 적합한 직무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면 한국외대는 최고의 인재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어토론 동아리 HDS, 전(全) 아시아 대학생 토론회 EFL 리그 우승… 2021년 우승 후 2년 만에 일군 쾌거

우리 대학 중앙 영어토론 동아리 HDS(HUFS Debate Society)는 6월 16일(금)~18일(일), 6월 24일(토)~25일(일) 열린 전(全) 아시아 대학생 토론회(United Asia Debating Championship, UADC) 본선 EFL 리그에서 우승을 거뒀다. 편해성(국제학), 김연수(영어통번역학), 윤석진(영어교육) 학생으로 구성된 팀은 결승전에서 만난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기술대학 대표팀과 ‘TH regrets the demonization of Communism in the domestic political discourse of East Asian countries(e.g. Red Scare in Japan, Red Complex in South Korea, etc.)’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8:1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한국외대, 교육부 주관 ‘초·중·고 SW/AI 교육의 디지털새싹 캠프’ 주관기관 선정

우리 대학 AI교육원(원장 김낙현)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SW/AI 교육의 디지털새싹 캠프’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5년 모든 교과 수업에 디지털 소양 교육이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 캠프는 7월 27일(목)부터 시작됐으며 총 8가지 과정으로 운영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3가지 주제다.



한국외대, ‘2024학년도 HUFS 지원전략 설명회’ 개최

우리 대학 입학처(처장 정석오)는 7월 29일(토)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4학년도 HUFS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지역 설명회에는 400여 명이 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우리 대학은 7월 13일(목) 부산을 시작으로 7월 25일(화) 대전, 7월 26일(수) 대구, 7월 29일(토) 서울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각 지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를 만났다. 설명회에서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2023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결과를 공개하며, 수험생들에게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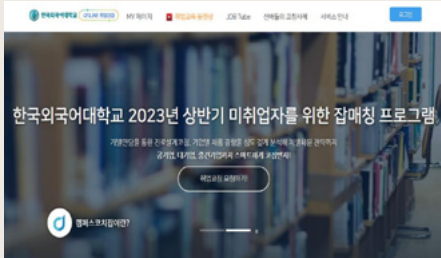
한국외대-HD현대, GRC커리어멘토링 개최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김민정)는 7월 26일(수)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 R&D센터(이하 ‘GRC’)에서 우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GRC커리어멘토링을 HD현대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HD현대 GRC커리어멘토링은 현직에 재직 중인 우리 대학 동문 선배들이 멘토로 참여해 채용 정보 및 실무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20~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던 것에 비해 이번 9회차 멘토링에는 총 153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HD현대는 버스 및 점심 식사를 지원하고 기념품을 제공했다.



한국외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지원에 총력

우리 대학은 8월 8일(화) 새만금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잼버리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우리 대학은 전날 저녁 잼버리 참가자들이 서울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받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캠퍼스 김태성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기숙사운영팀, 학생지원팀, 총괄지원팀, 국제교류팀 등으로 구성된 ‘한국외대 잼버리참가자지원TF’를 긴급 조직해 운영했다. 대학본부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등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돼 준비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미취업자를 위한 잡매칭 프로그램’ 운영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김민정)는 2023학년도 1학기 중 졸업(예정)자 및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년 상반기 미취업자를 위한 잡매칭 프로그램’(이하 잡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50명의 참가자 중 18명(36%)이 취업에 성공하여 준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취업 예정 및 진학 등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잡매칭 프로그램은 2022년 하반기부터 재개되어 지금까지 총 90명이 참가해 40%에 가까운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다.



GTEP(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사업단, 말레이시아 ‘MIFB 2023’ 참가… ‘말레이시아 식품전(SIAL)’ ‘태국 지페어(G-FAIR) 아세안+’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우리 대학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백재승, 이하 ‘GTEP사업단’)은 7월 12일(수)~14일(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식품 전시회 ‘MIFB 2023’에 참가해 대한민국의 식품 산업의 우수성을 알렸다. 7월 4일(화)~6일(목)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식품전(SIAL)’과 7월 6일(목)~7일(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지페어(G-FAIR) 아세안+’에도 참가하는 등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 GTEP사업단은 7월 13일(목)~16일(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팔도밥상페어’와 7월 24일(월)~26일(수)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비즈니스포럼’에도 참가했다.



2023학년도 하계 해외단기어학연수, University College Cork에서 4주간 진행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는 지난 6월 26일(월)부터 7월 21일(금)까지 4주간 University College Cork에서 해외단기어학연수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해외단기어학연수에는 최종 20명이 선발되어 오리엔테이션 등을 거쳐 과정에 참가했다. 아일랜드의 국립 명문대학인 University College Cork에서 강의는 물론 다양한 Social Activities, Volunteer Works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생지원·장학팀과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본 연수 프로그램은 1인당 400만원의 국제화장학금 지원과 과정 수료 시 교양 6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학부, 정보 소외 지역 초등학교 영어 캠프 교육 봉사 프로그램 ‘Eng:joy’ 개최

우리 대학 국제학부(학부장 이승래) 학생들이 8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에 걸쳐 백암초등학교(교장 김길수, 전북 정읍) 학생들을 대상으로 ‘Eng:joy’라는 타이틀의 영어 캠프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12명의 국제학부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준비해 국제학부의 여름 방학 영어 캠프 프로그램의 전통과 위상을 이어갔다.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는 “2023년 영어 캠프가 국제학부의 지속적인 재능 봉사 문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캠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향후 방향성도 함께 논의했다.



교직원신우회, 해외 단기 선교 진행

우리 대학 교직원신우회(회장 최현문)와 외대교회(담임목사 정동영)는 8월 7일(월)~10일(목) 오세원 동문(중국어 87)이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대만 난양은혜교회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오세원 동문은 20여 년 동안 대만과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 대만 이란시에서 교회를 개척해 목회하고 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한글학교를 통해 주변 청소년과 대학생과의 접촉점을 넓히고 있는데, 이번에 교직원신우회와 외대교회 총 11명이 함께해 이란국립대학과 난양중고교를 방문해 현지 젊은이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했다.



다문화교육원, LG다문화학교 8월 '어린이 문화주간' 초등캠프 개최

우리 대학 연구산학협력단(단장 김재욱) 다문화교육원(원장 채호석)은 8월 7일(월)~10일(목) 우리 대학 및 도봉숲속마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8월 초등캠프를 개최했다. 9개 언어권(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한국어, 국어논술) 170여 명의 초등과정 학생들과 50여 명의 우리 대학 언어권별 대학(원)생 멘토들이 참여한 이 캠프에서는 '어린이 문화주간: 다문화를 빛다'라는 주제로 저학년(2~4학년)과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14회 YTN·한국외대 중학생 영어토론대회 개최

우리 대학과 YTN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중학생 영어토론대회가 8월 12일(토)~13일(일)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General리그(국제부) 52개 팀, EFL리그(국내부) 15개 팀 등 총 67개 팀(201명, 3인 1팀)이 참가해 철학, 경제, 스포츠, 사법정의, 경영과 문화, 교육 등 총 8개 분야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 레이스를 펼쳤다. 본선에는 국제리그 16개 팀, 국내리그 8개 팀이 진출해 각각 16강전, 8강전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결승까지 진행한 결과 국제부 NOWITZKI팀(정하영, 송태윤, 안석현), 국내부 Adieu팀(김채환, 윤예지, 장시안)이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지역청년과 함께하는 해외영업 직무캠프 개최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김민정)는 8월 16일(수)~18일(금) 교원그룹 비전연수원(경기도 가평 소재)에서 2박3일간 해외영업 직무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캠프 참가자 전원은 해외 영업 직무의 채용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전문 강사진의 특강뿐만 아니라 현직자 및 전문 컨설턴트의 1:1 컨설팅으로 직무 기반의 인사 지원서를 완성하고, 기업체 인사 관계자로부터 AI 면접, 인성 면접, PT 면접 등에 대한 면접 전략과 개인별 실전 모의 면접 피드백 등을 받았다.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 제2회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AER) 대학생 사례분석 컴피티션 2년 연속 수상 쾌거
우리 대학 학생 대표단이 8월 17일(목)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장석환) 주최 제2회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Asan Entrepreneurship Review, AER) 대학생 사례분석 컴피티션에서 지난해 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결선에는 컴피티션에 참가한 총 100여 개의 팀 중 예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 최종 6개 팀이 참가해 AER이 발간한 기업 사례를 대학생들의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우리 대학 학생 대표단 2팀이 결선에 올라 우수상(마이스퍼트립팀)과 장려상(녹색머리엔싱팀)을 수상했다.



경제학회 쿠세아(KUSEA), 한국은행 주최 '202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최종 수상
우리 대학 중앙동아리 경제학회 쿠세아(KUSEA, 지도교수 손종철)는 8월 14일(월) 한국은행 별관 1층 대강당에서 '202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 팀을 대상으로 한 전국결선대회에 참가해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 대학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 쿠세아(KUSEA) '아기돼지 사형제'팀(팀장 김민서(노어 18), 김지은(융합일본 지역 20), 박세은(경제 18), 현의찬(경제 20))은 '8월 기준금리 결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외 경제, 경기, 금융, 외환 등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결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교육대학원 상담·UX심리 융합전공

2023 Digital Psychology Conference 개최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원장 김영록) 상담·UX심리 융합전공(주임교수 이지연)은 8월 9일(수)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김홍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행장(CISO, 전 안랩 대표이사), 이애라 카카오페이 UX 리서치팀 팀장 등 다수의 연사를 초청해 '2023 Digital Psychology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심리학의 미래, 사이버 심리, UX 심리학 등 최신 주제에 대해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에게 직접 배우고 그들의 경험담에 대해 들어보는 기회의 장이었다.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제13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원장 홍완석) 러시아·CIS학과는 6월 9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 HK+사업단이 후원하는 제13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전 그리스 대사/유럽 국장)을 초청해 제1강 '한국의 공공외교와 러시아', 제2강 '한국의 외교 동량은 어떻게 육성되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임수석 대변인은 제1강에서는 위기의 한-러 관계에서 공공 외교의 중요성을, 제2강에서는 한국의 외교 동량인 외교관 육성 과정을 설명했다.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대만 아태평화연구기금회 공동 국제 학술회의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6월 14일(수)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대만 아태평화연구기금회와 공동으로 '격변하는 동북아 국제관계와 지역안보(巨變中的東北亞國際關係與區域安全)'를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총 4명의 전문가가 발표했으며, 2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해 한국, 러시아,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외교 전략과 안보 정책을 논의했고, 미중 전략 경쟁 아래 한국과 대만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23 유라시아 영화제'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 지역문화센터 톨레랑스는 6월 28일(수)~7월 16일(일) 19일 동안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와 공동으로 '2023 유라시아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2023 유라시아 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영상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조지아(Georgia) 특별전-오타르 이오셀리아니 회고전'을 기획 상영했다. 영화제에서는 조지아의 풍요로운 문화적 유산과 소박한 삶,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교차하는 유럽 등 두 개의 공간 축으로 오타르 이오셀리아니 감독의 작품 세계를 조명했다.



철학문화연구소 공동 2023년 상반기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 이하 사업단)은 8월 5일(토),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우리 대학 철학문화연구소(소장 홍성민), 한국아렌트학회, 한국해석학회와 공동으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을 위한 철학의 토대: 한나 아렌트의 인권, 법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023년 상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본 학술회의는 총 7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 지정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21세기 위기와 혼란 속에서 국제 사회가 어떻게 정의와 질서를 구현해 나아가야 할지 논의했다.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제13회 국제청년학자인문·문화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주임교수 임대근)는 7월 14일(금)~15일(토) 양일간 제13회 국제청년학자인문·문화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우리 대학을 비롯해 대만중흥대, 싱가포르난양이공대, 홍콩링난대가 공동 주최했으며 싱가포르국립대와 필리핀타를라대에서도 발표자로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화정체성: 아시아 내러티브와 문화콘텐츠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전체 주제 아래 논문 총 28편이 영어와 중국어로 발표됐다.



동남아연구소

2023 하계 인도-동남아시아 학술대회 공동 개최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신근혜)는 6월 9일(금)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과 세미나실에서 인도연구소, 한국태국학회, 국제인도-아세안학회와 공동으로 '2023 하계 인도-동남아시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한국태국학회 윤경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태국 지역 연구, 동남아 지역 연구, 인도 지역 연구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인도 및 동남아시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디지털인문학한국학연구소

'딥러닝과 언어' 튜토리얼 개최

우리 대학 디지털인문학한국학연구소(소장 이해윤)는 7월 17일(월)~21일(금) 5일간 2023년도 제1차 디지털인문학 튜토리얼을 개최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충남대 이용훈 박사를 초청해 '딥러닝과 언어'를 주제로 최근 인공지능의 기초 기술인 딥러닝과 이에 의한 언어 분석 등을 학습했다. 이번 튜토리얼은 딥러닝의 기초부터 시작해 인공신경망, Transformer 모델, 언어 분석, 최근 화두로 떠오른 Chat GPT를 비롯한 여러 언어 모델 등을 단기간에 학습하는 기회를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러시아연구소

제13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타회 시상식 개최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5월 26일(금)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에서 제13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5월 19일(금) 온라인(Zoom)으로 개최된 제13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타회는 러시아어권 연수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 아래, 참가 자격을 '러시아어권 체류 기간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으로 명시하고, 통·번역 대학원생의 참여도 제한했다. 수상자들에게 대사관이 준비한 장학금과 한국외대 총장 및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 명의의 상장이 수여됐다.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경제연구소 산하

러시아리서치 센터와 MOA 체결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6월 29일(목)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경제연구소 산하 러시아리서치 센터(소장 Tokuo IWAISAKO)와 학술 교류와 실천 사업에 관한 협력과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MOA(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 각서 체결을 통해 양기관은 연구원 교류, 공동 연구, 세미나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발간 자료 상호 교환 등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러시아리서치 센터(RRC)는 소련 시기 구 공산권 연구를 주도하는 일본 내 권위 있는 기관이다.



2023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사업 수행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양국의 주요 싱크탱크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러시아연구소는 사업 기간 러시아의 대표적 싱크탱크 러시아외교위원회(RIAC: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와 라운드테이블, 모스크바 국제관계 대학교(MGIMO)와 국제학술 컨퍼런스를, 러시아과학원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번역학교육연구센터

외국인 석학 초청 특강 개최

우리 대학 번역학교육연구센터(센터장 조성은)는 한국번역학회(회장 조성은)와 공동으로 5월 31일(수) 대학원 BRICs 국제포럼장에서 로햄턴 대학교(University of Roehampton London) 디오니시오스 캅사스키스 교수를 초청해 영상 번역과 문화 산업 번역 분야에 관한 특강을 개최했다. 100분간 진행된 이번 특강은 '번역과 영화', '번역과 크리에이티브 산업', '멀티모달리티 번역'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2023년 세미오시스 여름학교 개최

우리 대학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센터장 서종석)는 8월 16일(수)~18일(금)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2023년 세미오시스 여름학교'를 개최했다. 세미오시스 여름학교는 '세미오시스 인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학문간 대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교양 교육 프로그램이다. 1일차 '문화 현상과 관찰', 2일차 '문화 해석과 소통', 3일차 '문화 변동과 상상'이라는 주제로 인문학의 최신 담론을 다루는 15개의 강의와 3개의 열린 토론이 전개됐다. 교강사를 비롯한 전문 연구자, 대학원생, 대학생, 시민들이 참석했다.



아랍어과

한국이슬람학회 공동 국제 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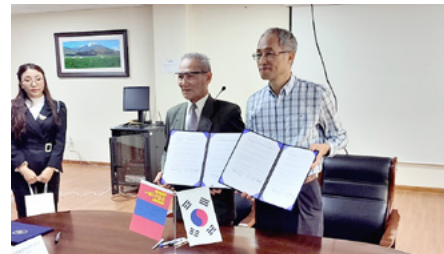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는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이슬람학회와 공동으로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New Perspectives & Reinterpretations on Islam)'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Arabic For All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5개국 11명의 연구자들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고, 11명의 토론자들이 이슬람의 종교, 인권, 사고방식, 가족, 경제와 금융, 국제 관계, 수학, 건축,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문화유산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역사문화연구소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칭기스칸연구소와 교류 협정 체결

우리 대학 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근영)는 8월 23일(수)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대회의실에서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칭기스칸연구소(소장 바, 쉘미야바아타르)와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더불어 한국과 몽골간 다양한 대외 관계, 각 국가의 언어와 역사 등에 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영미연구소

한국영어영문학회 공동 시민 강좌 개최

우리 대학 영미연구소(소장 정은귀)는 5월 18일(목)~6월 15일(목) 한달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영어영문학회와 공동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민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 강좌의 주제는 '인문학의 공공성과 대학의 안과 밖'으로, 영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위상이 위태로운 오늘날 인문학 및 영문학이 수행하는 여러 실천적 행위와 비평적 담론이 대학의 안과 밖에서 어떤 몫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총 5회에 걸쳐 학생, 일반 시민과 각 대학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강좌가 진행됐다.



유라시아·몽골연구센터

(주)인피니티컨설팅과 한·몽 학술 교류 촉진을 위한 산학 협력 협약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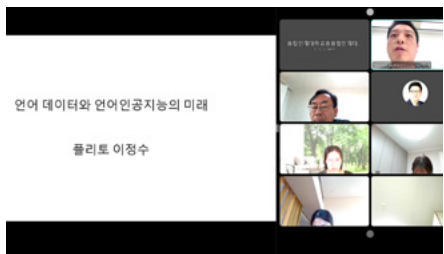
우리 대학 유라시아·몽골연구센터(센터장 김기선)는 5월 26일(금) (주)인피니티컨설팅(대표이사 이영섭)과 한·몽 학술 교류 촉진을 위한 산학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공동 기획 및 정기 학술대회 공동 개최 ▲한몽 양국간 학술 교류 연구 성과 및 정보 교류 ▲기타 양방의 연구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융합인재대학

'2023 Ingenium-K Project' 창의융합 전문가 1회차 특강 개최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학장 이현승)은 5월 16일(화) 'Chat GPT와 언어데이터'를 주제로 융합인재대학 '2023 Ingenium-K Project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1회차 특강의 주인공인 언어 데이터 및 전문 번역 서비스 기업 플리토 이정수 대표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사람의 언어 데이터 처리 능력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어 데이터가 Chat GPT 등 인공지능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강의했다. 특강에는 80여 명의 융합인재대학 학생들 및 교강사가 참여했다.



이탈리아연구소(CISIC)

릴레이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이탈리아연구소(소장 김시홍)는 각계각층 명사를 초청해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로 5월 10일(수) 이연택 한양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글로벌 관광 시스템의 변화와 가능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두 번째는 5월 31일(수) 이탈리아 기업 사비노델베네의 루카 시고트 한국지사장을 초청해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현황과 기업 활동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 번째는 6월 7일(수) 이탈리아어과 동문들을 초청해 진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인문학 테마 아카데미: 인도 인문학 여행' 개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지역인문학센터 간디아슈람은 지난 7월 12일(수), '찾아가는 인문학 테마 아카데미: 인도 인문학 여행'을 개최했다. 동대문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도의 사회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첫째 날 강의는 '인도 전통 요가와 현대 요가'라는 주제로 심준보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가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대문구청이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받은 일반인 수강생 40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8월 30일(수)까지 총 7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됐다.



장모네 EU센터

아시아 태평양 EU학회 연례 학술대회 참가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6월 29일(목)~30일(금) 양일간 태국 출라롱콘 대학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EU학회(EUSA Asia Pacific)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학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는 독립 세션을 구성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미래 구상에 대해 부문별로 살펴봤다. 세션은 김시홍 소장의 사회로 김봉철 공동소장, 이무성 교수(명지대), 윤성원 교수(수원대), 정세원 교수(부경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도연구소

예일대학교 맥밀란 센터 남아시아연구협회와 국제 교류 간담회 개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HK+사업단은 6월 21일(수) 서울캠퍼스 국제관 203호에서 예일대학교 맥밀란 센터(Yale's MacMillan Center) 남아시아연구협회(South Asian Studies Council)의 프로그램 및 기관 교류 이사 카스투리 굽파와 국제 교류 및 연구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도 및 남아시아 관련 연구 교류를 하고, 기관 차원의 공동 개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선농단역사문화관 공동 '선농단(先農壇), 인도를 만나다' 사진전 개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지역인문학센터 간디아슈람은 선농단역사문화관과 공동으로 8월 8일(화)~27일(일) 20일 동안 '선농단(先農壇), 인도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했다. 인도 출신 사진작가 이드리스 아흐메드의 작품 20여 점을 접할 수 있었던 이번 전시회는 선농단역사문화관 지하 3층 전시실에서 진행됐다. 인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간디아슈람은 '찾아가는 인도 인문학'이라는 테마로 일반 시민들이 인도를 쉽고 재밌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급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한-중남미 협력 강화' 하계 공동 국제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6월 17일(토)~18일(일) 양일간 제주대 사회과학대학과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에서 한국 라틴아메리카학회, 외교부, 제주대 평화연구소,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한국 포르투갈·브라질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한-중남미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총 9개 세션에서 한-중남미 관계와 환경, 평화, 불평등, 이민 등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사라 솔리스 까스파네다 주한 과테말라 대사 초청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6월 26일(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사라 솔리스 까스파네다 주한 과테말라 대사를 초청해 '마야 문명과 원주민 생태철학(The Maya Civilization and its ecological philosophy)'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라 대사는 마야 문명 전반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야인의 생태 철학을 소개했다. 특히 세미나에서 소개된 마야의 민간 설화는 마야인들이 얼마나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생각했는지, 자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줬다.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8월 21일(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를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4의 길'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예정된 미래'에 가지 뉴노멀과 제4의 길,의 저자인 이현훈 교수는 뉴노멀 시대를 디지털 사회, 노인 사회, 양극화 사회, 기후 위기로 특징 짓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축으로 환경 보전, 경제 성장, 사회적 형평성을 제시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을 통해 지속가능한 참 발전(Sustainable True Development)을 이루는 '제4의 길'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중동연구소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와 업무 협약 양해 각서 체결

우리 대학 중동연구소(소장 유달승)는 6월 1일(목)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방문해 업무 협약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 행사에는 유달승 중동연구소장과 김규식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사무총장을 포함해 중동연구소 소속 연구원들과 국제무예센터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유달승 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중동·이슬람 지역 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예를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 참가 및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와 MOU 체결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8월 22일(화)~24일(목)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무역의 과제'를 주제로 하는 '2023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EU연구소는 8월 23일(수) 개별 발표 세션을 진행했다. EU연구소 김봉철 소장의 사회로 중남미연구소 하상섭 연구교수, EU연구소 이하얀 연구교수, 양우진 선임연구원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 이후 EU연구소와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와의 업무 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EU연구소

한국연구재단 발트 3국 지역연구 사업 최종선정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과의 문화·학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트연구센터'를 설치했다. EU연구소는 발트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당국 주한 대사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방면의 교류와 공동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EU연구소는 '정체성의 정치: 발트 3국의 탈러시아화 연구'(연구책임자 홍완석 국제지역대학원장)를 주제로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공동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홋카이도대학교 공동 주최 한중일 북극 연구 커뮤니티 학술대회 참가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지난 8월 28일(월),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홋카이도대학교(Hokkaido University)에서 열린 북극 연구 커뮤니티(NPARC, North Pacific Arctic Research Community)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NPARC 세미나는 한국 해양수산개발원(KMI), 중국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SIIS), 일본 홋카이도대학교가 매년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공동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올해는 일본 홋카이도대학교에서 한중일 3국의 다양한 북극 연구 분야 관련 양자·다자 연구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북극권 국가 연구 사업과 연계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HUFS Professors



**박흥수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지원사업 선정**

우리 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박흥수 교수는 「중국어 조어법의 새로운 길-준접사의 발생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 우수학자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그동안의 연구업적을 집대성·발전시킴으로써 장기적 심화 연구와 저술 활동 촉진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 세계적 석학 배출을 위해 총 2억5천만원(5000만원*5년)을 지원한다. 박흥수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신진연구과제, 인문학육성과제, 선도연구자과제,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인문저술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했으며, BK21+ 한중언어문화소통사업단을 구성해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 7년간(2013~2020) 약 28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김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제22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 수상자 선정**

우리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민정 교수가 (사)한국언론법학회가 매년 수여하는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 대법관을 역임한 김재형 서울대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외부 심사위원 3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김민정 교수의 '언론윤리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개념 분석과 국내·외 윤리강령 검토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권권, 제9권 제1호, 2023 게재)'라는

논문을 제22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제22회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및 기념 학술 세미나는 8월 24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김익수 한국어교육과 교수,
제4회 학법 박승빈 국어학상 저술 부문 수상**

우리 대학 한국어교육과 김익수 교수가 8월 22일(화) 전남대 김남주시인기념홀에서 열린 한국어학회(회장 구본관 서울대 교수) 전국 학술대회에서 제4회 학법 박승빈 국어학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법조인이자 교육자, 국어연구가였던 학법 박승빈 선생(1880~1943)의 뜻을 기려 매년 저술, 공로, 박사 논문 부문으로 나눠 상장과 연구비(저술과 공로 부문 각각 1만달러, 박사 논문 부문 5천달러)를 시상한다. 김익수 교수가 쓴 「문장 분석」(도서출판 하우, 2023년 2월)은 저술 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은 한국어 연구를 위해 김익수 교수가 창안한 해석문법 이론이 한국어 문장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간명하게 표시해 텍스트 분석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해 국어학 연구의 지평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지연 교육대학원 교수,

싱가포르 Meta APAC Safety Summit 참가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및 상담·UX심리 융합전공 이지연 교수는 8월 28일(월)~30일(수)까지 Meta(전 Facebook) Asia-Pacific(APAC) 본사 초청으로 싱가포르 Meta 오피스에서 열린 Safety Summit에 참가하였다. 이번 Summit에서 이지연 교수는 유저들의 심리적 안전에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BP(Best Practice)로 소개되었다. 현재 이지연 교수는 Meta에서 유저들의 안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Safety 부서에서 자살 자해(SSI) 및 여성의 이슈(NCII)에 관한 한국 유일의 advisory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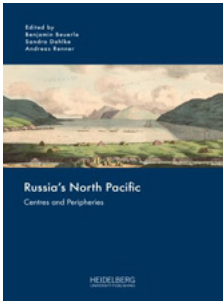


교수 출간

송준서 러시아연구소 교수,

신간 「Russia's North Pacific」 출간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 송준서 HK교수는 지난 7월 신간 「Russia's North Pacific: Centres and Peripheries」를 독일 Heidelberg University Publishing에서 출간했다. 총 11명의 학자가 집필한 이 연구서는 20세기 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행위자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해당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다. 이 책에서 송준서 교수는 오늘날 러시아 극동 지방 정부가 1945년의 소련-일본 전쟁에 대한 기억을 지역 정체성 재정립 및 재정의 과정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고찰했다.



이상빈 EICC학과 교수, 「K 문학의 탄생」 출간

우리 대학 EICC학과 이상빈 교수는 동국대 조의연 교수와 함께 「K 문학의 탄생: 한국문학을 K 문학으로 만든 번역 이야기」(김영사)를 출간했다. 「K 문학의 탄생」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인 번역가와 번역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한국 현대 시 번역의 최고 권위자 안선재와 한국 현대 소설 번역의 거장 브루스 풀턴을 비롯해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 등을 번역한 제이미 장, 김혜순의 시집 「한 잔의 붉은 거울」 등을 번역한 로렌 알빈과 배수현, 윤고은의 소설 「밤의 여행자들」 등을 번역한 리지 불러, 김이들의 시집 「히스테리아」 등을 번역한 제이크 레빈 등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NEW HUFSan

〈신임 교원〉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신임 직원〉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 이기영 중국학대학 중국외교통상학부	09 Nathan Wil Tilman 영어대학 영미문학·문화학과	17 Soontaree Larprungrueng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25 최지현 사업본부운영3팀(국제사회교육원)
02 김영성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10 Aylin Can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18 Tabor Sheila May 외국어교육센터(글로벌)	26 옥가은 입학총괄팀
03 황진성 경영대학 경영학부	11 Phung Thi Thanh Lam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베트남어과	19 김정호 총괄지원팀(서울)	27 최성용 입학총괄팀
04 정신동 법학전문대학원	12 Gyan Prakash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20 김지영 사업본부운영2팀(한국어문화교육원)	28 박은지 IT인프라팀(서울)
05 이동원 인도연구소	13 Chu Daqing 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21 성승연 교무행정팀(서울)	29 안시우 IT인프라팀(서울)
06 이기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과	14 John Yang 경영대학 경영학부	22 이준희 사업본부운영2팀(한국어문화교육원)	30 강용현 시설관리팀(글로벌)
07 손경락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15 Abdul Rahman Ballo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23 임은지 학사종합지원센터(서울)	
08 우명균 바이오메디컬공학과	16 Norazlina Mohd Kiram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24 임채경 진로취업지원센터(글로벌) 겸 현장실습지원센터(글로벌) 겸 공공인재개발원운영팀(글로벌)	

외국어연수평가원

2023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3년 하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8. 07. ~12. 22.
	방학특별과정	7월, 12월	12. 26. ~01. 23.
야간과정	야간회화과정	3월, 8월	08. 29. ~11. 23.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3월, 8월	08. 19. ~12. 02.
외시과정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과정	3월, 9월	09. 06. ~12. 27.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 과정으로는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 특별과정,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과정 등이다.

문의 02-2173-2515, 2524, 2557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이메일 fl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정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서울시청, 씨티은행, 법원행정처, 예금보험공사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의 위탁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이메일 flttc@hufs.ac.kr

2023년 여름방학 서울런(SEOUL LEARN)

영어동행캠프 진행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서울시와 함께 7월 31일(월)~8월 11일(금) 총 11일간 서울런(SEOUL LEARN) 영어동행캠프를 진행했다. 서울 시내 5개 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 영어동행캠프는 초등학교(4~6학년) 70명, 중학생(1~3학년) 30명 총 100명이 참가했다. 이번 영어동행캠프는 'Meet the World'(초등학생), 'Tap your Dream'(중학생)이라는 테마로 진행됐으며,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롤플레이, 교구 학습, 영어표현 학습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자기주도 영어학습법, 맞춤형 보충학습 등 실제 학교 수업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8월 11일(금)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수료식은 참가 학생 및 청소년센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주간의 영어동행캠프 학습 결과물을 담은 영상 상영, 수료증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스페인 정부기관인 Instituto Cervantes와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기관으로, 연 3차례(5월, 7월, 11월)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력하여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을 개설,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 학과정(A1~C2), DELE 시험대비반(A2~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비즈니스/여행/축구 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지도한다. 평일과 주말에 모든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이메일 aulacervantes@hufs.ac.kr

서울평생교육원

2023년 하반기 개설 강좌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3년 하반기 교육일정
통번역과정	통번역기초과정	9월	09. 02. ~12. 09.
교양과정	부동산 투자 전략과정	10월	10월 중순~12월 중순(예정)
	부동산 경매 입찰과정		
	웹소설 작가 양성과정		

통번역기초과정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과정으로, 2014년 개설돼 현재 18기(영어, 일본어)를 운영하고 있다. 통번역기초과정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월과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이메일 edulife@hufs.ac.kr

실용 교양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2023년 상반기 부동산, 웹소설, 상담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과정을 진행했다. 부동산 재테크과정은 '반지하에서 반오피파트 입성하기'의 저자인 이재국 교수의 '부동산 투자 전략과정'과 오기열 교수의 '부동산 실전 경매 입찰대비반'이 운영되었다. 웹소설 작가 양성과정은 웹툰 및 웹소설 전문 제작사인 드림픽처스21과의 공동 기획 아래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현재 인기 웹소설 작가들의 팀티칭 수업을 제공해 수강생들의 뜨거운 참여 가운데 '웹소설 작가 양성과정' 1기를 성황리에 마쳤다. 상담심리 입문과정은 우리 대학 현재 상담심리 전공 교수의 소규모 토론식 수업으로, 예비 전문상담교사 및 심리상담사로서 기본 소양을 쌓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서울평생교육원은 2023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만족도 높은 양질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2-2173-2515, 2557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이메일 edulife@hufs.ac.kr

FLEX센터

2023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우리 대학이 수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 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 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번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는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 16 ~ 02. 22.	03. 19.	04. 07.	04. 21.
2회	04. 27 ~ 05. 03.	05. 28.	06. 16.	06. 30.
3회	08. 10 ~ 08. 16.	09. 10.	09. 29.	10. 13.
4회	10. 05 ~ 10. 11.	11. 05.	11. 24.	12. 08.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의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TESOL전문교육원

2023년 전기(41기) 수료식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8월 19일(토) 2023년 전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박정만 TESOL전문교육원장과 주임교수들을 비롯해 지난 2학기 동안 TESOL과정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참석해 20여 명의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수료식은 공로상 및 장학증서 수여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의 02-2173-3504 **홈페이지** <http://tesol.ac.kr>

2023학년도 후기(42기) 등록자 대상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8월 19일(토) 2023학년도 후기(42기) 신입생 대상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신입생들은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반적인 커리큘럼 이해도를 높이고, 교수료자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TESOL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은 학사, 장학, 인턴십 참가 등 TESOL연구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의 02-2173-3504 **홈페이지** <http://tesol.ac.kr>

2023년 여름방학 동대문구 영어체험교실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7월 31일(월)~8월 12일(토) 총 12일간 동대문구 영어체험교실을 진행했다. 동대문구 관내 초등학교(3~6학년) 134명이 참가한 이번 영어체험교실은 수준별로 총 9개반으로 구성해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반별로 원어민 강사 이외에 한국인 보조강사들이 참여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영어 학습 및 참여를 이끌었다. 8월 12일(토)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수료식은 참가 학생과 학부모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주간의 영어체험교실 생활을 담은 영상 상영, 수료증 시상, 학생들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문의 031-330-4809 **홈페이지** <http://gla.hufs.ac.kr>

한국어문화교육원

여름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번 여름학기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철저한 방역을 거쳐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했으며,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 우리 교육원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5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홈페이지** <http://www.korean.ac.kr>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경기도교육청 중등 교과 부전공 자격연수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2023년 1월부터 7개월간 진행해온 경기도교육청 중등교과 부전공 자격연수가 지난 8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심리학, 정보컴퓨터 총 2개 전공에 대해 157명의 교사들이 해당 전공에 대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이수했다. 지난 2022년에는 스페인어 부전공 자격연수를 진행해 25명의 교사들이 부전공 자격연수를 이수한 바 있다. 중·고등학교 현재 교사인 연수생들은 이 과정에서 학습한 전문 지식을 통해 향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제도하에서 더욱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부전공 자격연수 위탁 교육에는 총 6개 대학이 참여했으나 과정의 규모와 참여 인원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교육원은 지난 2년간 교육과정을 수행하며 획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영재교육원 2023년도 2학기 개학

영재교육원은 8월 26일(토) 9회차 정규과정 수업을 시작으로 2학기를 맞이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으로 구성된 영재교육원은 학생의 학년에 따라 학급을 구분하는 한편, 능력에 맞게 다양한 영어 및 수학 콘텐츠를 접하며 한국외대 영재교육원만의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소화하고 있다. 이 과정은 12월 2일(토) 산출물 발표와 2024년 1월 6일(토) 수료식을 통해 1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한다.

문의 031-330-4809 **홈페이지** <http://gla.hufs.ac.kr>

통번역센터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캄보디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8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히브리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사이버한국외대 2023학년도 전체 교수 워크숍 개최
사이버한국외대는 6월 15일(목) 사이버관 대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전체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 대학의 도약과 혁신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장지호 사이버한국외대 총장과 원종민 학장을 비롯한 내국인 전임교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인 문취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세계의 환경 변화와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 특강, 삼일회계법인의 대학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컨설팅 최종 보고, 부서별 현안 공유 및 대학 발전 전략 토론회 세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 일본 간사이 지방 '하계 해외문화탐방' 성료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는 7월 22일(토)~25일(화) 일본 서부 간사이(関西) 지방으로 하계 해외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탐방은 정현혁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장과 신의식 교수의 인솔 아래 일본어학부생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등 간사이 지방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들과 일본의 3대 국립대학 중 하나인 오사카대학교를 방문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학부별 해외 문화 탐방, 해외 여행 연수,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등 국제교양인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산학협력단, '2023년 세종학당재단 교원연수센터 운영' 기관 선정
사이버한국외대 산학협력단은 세종학당재단의 '2023년 세종학당재단 교원연수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사업 수행을 시작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법정 공공기관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세종학당 교원 맞춤형 재교육 운영', '표준 교육과정 개발' 등의 세부 과업을 통해 세종학당재단 교원연수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전문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의 총 운영 책임은 진정란 사이버한국외대 글로벌교육원장이 맡았다.



사이버한국외대-미시간 주립대 공동 'MSU-CUFS TESOL 수료증' 과정 신설
사이버한국외대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와 교과목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MSU-CUFS TESOL 수료증' 과정을 신설해 9월부터 공동 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Shawn Loewen 교수와 Dustin De Felice 교수 등 미시간 주립대의 교수진이 감수 및 설계하고 촬영 제작한 강의 콘텐츠를 사이버한국외대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사이버한국외대와 미시간 주립대는 이외에도 내년 봄부터 시작하는 'Business English Program' 등 다양한 영어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공동 과정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이버한국외대 '진료 중국어' 2개 강좌, K-MOOC '블루리본' 우수 강좌 선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연차 평가 결과 사이버한국외대의 '통증을 물어보는 진료 중국어(중혜현 교수)'와 '통증을 알아듣는 진료 중국어(장린자 교수)'가 우수 강좌를 의미하는 '블루리본' 혁신 사례 강좌에 선정됐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온라인 외국어 교수 설계 모형 'CUFS-TEA(Transfer, Experience, Agility)'에 기반해 제작된 '진료 중국어' 묶음 강좌는 e북과 게임, 발음 모니터링 앱 등 무크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포함해 몰입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해당 강좌는 K-MOOC 홈페이지에서 10월 15일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사이버한국외대 해외 우수 대학과의 MOU 체결 잇달아
사이버한국외대가 코로나 종식에 접어들며 해외 우수 대학과의 적극적인 교류 재개에 나섰다. 7월 10일(월) 사이버한국외대와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학교는 MOU를 체결하고 인적 교류, 연구 및 학술 교류, 문화 프로그램 교류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7월 18일(화) 인도네시아 파순단대학교 및 국제여자대학교, 8월 14일(월) 태국 탐마삿대학교, 8월 18일(금) 태국 실라빠견대학교, 8월 29일(화) 베트남 반랑대학교와 MOU 체결을 잇달아 완료했다. 사이버한국외대 글로벌교육원은 해외 기관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다양한 학술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DONATION
I

재하노이 한국외대 동문회,
학교 발전기금 기부

우리 대학 재하노이 동문회(회장 안성구, 베트남어 88, 이하 ‘하노이동문회’)가 8월 17일(목) 학교 발전기금 1천5백만원을 기탁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베트남 한국 교민 16만 명 중 절반에 달하는 7만여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하노이동문회는 100여 명의 동문이 상호 친목을 다지며 모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1월 박정운 총장은 우리 대학과 하노이국립대간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해 베트남 현지에 방문했을 당시 하노이동문회와의 교류의 자리에서 “교육의 발전과 인재 양성 및 후배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외대 동문 선배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하노이동문회는 5~7월을 모교 사랑 실천을 위한 특별 모금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하노이 동문 40여 명이 모교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총 1천5백만원의 기금을 모금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노이동문회의 이번 특별 모금은 동문 간의 친목 도모를 넘어 모교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하노이 마음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됐으며, 이를 계기로 하노이 동문 사회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모교와 동문회 간의 네트워크 역시 다져지는 자리가 됐다.



DONATION
II

영어대학 동문회,
장학기금 4천1백만원 기탁

우리 대학 영어대학 동문회(회장 주영립, 영어 79)가 8월 31일(목) 4천1백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올해 들어 영어대학 출신 동문들의 발전기금 기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영어대학 동문들의 모교 사랑 움직임이 확대되던 중, 영어대학 동문회는 동문들의 모교 발전을 향한 염원과 학과 후배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선배들의 사랑을 담아 영어대학 장학기금을 학교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주영립 회장은 “동문과 동문회는 모교 발전의 큰 축이며, 모교의 성장은 나와 후배들이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동문들의 기부는 외대인 모두에게 전해지는 선한 영향력의 확장이자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선물과 같다”며, “후배들이 부디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데 이 기금이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정운 총장은 “영어대학 동문회가 후배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 감사드린다”며, “학교는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화답했다.

재직동문교수회,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식 개최
우리 대학 재직동문교수회(회장 김시홍)는 6월 12일(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알레그로룸에서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생에 대해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직동문교수회 정기총회를 겸해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는 총 6명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각 1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생은 이은주(KFL대학원), 김다희(국제학부), 김효정(중국외교통상학부), 유수정(화학과), 이태환(GBT학부), 정륜오(이탈리아어과) 학생(이상 대학원·학부 이하 성명 가나다순)이다.



김세원 여성동문회 명예회장, 강의실 헌정식 개최
우리 대학 여성동문회 김세원(프랑스어 63) 명예회장 강의실 헌정식이 6월 16일(금)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 408호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오종진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방송인이자 前 EBS 이사장을 역임하며, 우리 대학 여성동문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세원 회장의 학교 발전기금 1억원 회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세원 회장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세 가지 행동은 외대를 선택한 것, 방송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은 것, 그리고 여성동문회를 창립한 것”이라고 답하며 “성공의 초석이 되어준 모교에 대한 감사와 발전을 앞으로도 염원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헌정식에는 여성동문회 이애리 회장, 김길숙 사무총장과 차기 회장 서경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한 우리 대학 여성동문회 임원진들이 참석했으며, 박정운 총장,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김현정 교육혁신원장, 박경은 홍보실장, 원종익 프랑스어학부장, 이창훈 프랑스어학부 교수, 김응운 프랑스학과장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정운 총장, 재우즈베키스탄 한국외대 동문회와 간담회 개최
우리 대학 박정운 총장은 지난 7월 6일(목) 재우즈베키스탄 동문회(회장 유지탁, 노어 92)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박정운 총장이 우즈베키스탄 교육부가 주최한 국제컨퍼런스(Central Asia as the Next Higher Education Hub)에 초청을 받아 타슈켄트에 참석하게 되면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정운 총장은 “최근 한국에서 실�크로드 문명의 중심이었던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중앙아시아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부(중앙아시아학과) 및 대학원(러시아·CIS학과) 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재우즈베키스탄 동문회 유지탁 회장은 “모교 총장님을 모시고 의미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재우즈베키스탄 동문회에서는 꾸준히 동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여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지탁 회장을 포함해 동문회 주요 임원진이 함께 참석하였다.



Donation & Alumni

스페인어과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개최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총동문회는 7월 12일(수) 제7·8대 집행부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우리 대학 본관 13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7대 이상욱 회장이 퇴임하고 새로이 정길화 회장이 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길화 회장은 취임식에서 “전임회장 등 역대 집행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총동문회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박정운 총장, 우덕룡 스페인어과 명예교수(스페인어 55)를 비롯한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종재 총동문회 사무총장, 남기창 아랍어과 총동문회장, 조태용 외맥산악회장 등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현재 문체부 산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원장으로 재임 중인 정길화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교의 발전, 스페인어과의 위상 제고, 동문간 친목과 단결에 기여하는 동문회를 지향하겠다는 3대 기조를 발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스페인어권 외국인 참석자를 고려해 주요 부분은 스페인어로 순차 통역해 눈길을 끌었다. 정 회장은 8대 집행부 사무총장으로 이혜영 동문(스페인어 91)을 지명했다. 또한 8월에는 현안을 점검하는 집행부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호(행정 00(박사)) 동문, 제21회 백두산역사문화탐방 주최 백두산문인협회 김윤호(행정 00(박사)) 회장은 7월 22일(토)~26일(수) 제21회 백두산역사문화탐방을 주최했다. 1994년 창립해 민족 문학 활성화와 조국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김윤호 동문은 1991년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 차례로 수필가(1995년 「수필문학」)와 소설가(2012년 「백두산문학」)로도 등단했으며, 2018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학재(스페인어 86) 동문, 주칠레 대사 신임

김학재(스페인어 86) 동문이 7월 26일(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주칠레 대사로 신임됐다.



홍순창(중국어 88) 동문, 주시안 총영사 부임

홍순창(중국어 88) 동문이 8월 28일(월) 제7대 주시안 총영사로 부임했다.



박노황(영어 76) 동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이사장 임명

박노황(영어 76) 동문이 8월 18일(금)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박노황 이사장은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설균태(영어 59) 동문, 성균관 고문 추대

설균태(영어 59) 동문이 6월 13일(화) 성균관에 서 최종수 성균관장으로부터 성균관 고문으로 추대돼 34대 성균관 고문 추대장을 받았다. 설균태 동문은 지난해 성균관에서 행한 각종 기념 행사와 「홍유후설충선생문집」 발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유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성균관장으로부터 숭조돈목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Donation & Alumni

동문 출간



조갑동(스페인어 55) 역
삼국유사
(말라가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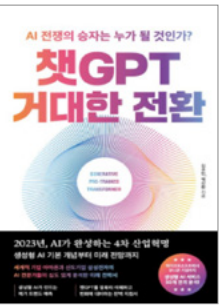
유택주(경제학 74)
깨달음과 멸정복성
(반달뜨는 꽃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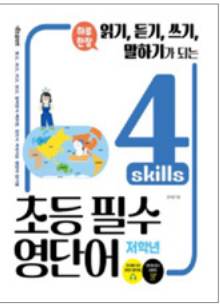
윤강로(영어 76)
용광로 은혜
(초록엽서)



박경식(법학 87)
재주도 좋아. 제주로 은퇴하다니
(페스트북)



백선환(영어학 06)
챗GPT 거대한 전환
(알에이치코리아)



강다훈(영어교육 10)
하루 한장 4skills 초등 필수 영단어
(키즈프렌즈)

Donation List

Donation & Alumni

한국의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강동희	17학번	30,000
강영남	93학번	30,000
강봉조	15학번	5,000,000
강지선	09학번	100,000
강지혜	04학번	30,000
고경숙	01학번	30,000
고태수	07학번	30,000
고해섭	11학번	120,000
고혜수	16학번	30,000
공다영	13학번	300,000
공병훈	11학번	90,000
곽영곤	17학번	40,000
곽성희	74학번	3,360,500
곽태석	77학번	30,000
곽태환	57학번	19,615,265
구민구	02학번	30,000
구지철	73학번	10,081,500
권서영	19학번	30,000
권성욱	79학번	30,000
권영아	91학번	30,000
권준호	93학번	90,000
기나영	12학번	500,000
김경민	01학번	90,000
김가수	87학번	30,000
김남규	18학번	30,000
김대운	99학번	30,000
김대호	91학번	60,000
김대희	11학번	90,000
김덕술	81학번	100,000,000
김도현	13학번	30,000
김도현	18학번	30,000
김미경	84학번	150,000
김미수	14학번	30,000
김민정	99학번	30,000
김민정	19학번	30,000
김민주	16학번	30,000
김범수	92학번	30,000
김범수	03학번	100,000
김병진	79학번	60,000
김상원	86학번	30,000
김선수	86학번	60,000
김선주	74학번	60,000
김성진	73학번	500,000
김승학	93학번	1,000,008
김승수	87학번	120,000
김승영	86학번	300,000
김용빈	89학번	30,000
김용정	95학번	187,500
김용진	89학번	90,000
김용현	89학번	40,000
김유정	03학번	30,000
김유현	10학번	90,000
김은정	94학번	30,000
김은정	93학번	30,000
김은희	84학번	1,000,000
김이선	16학번	30,000
김지영	11학번	90,000
김정기	80학번	3,000,000
김종윤	90학번	30,000
김종호	89학번	11,109,824
김주영	20학번	30,000
김준명	93학번	50,000
김지숙	15학번	30,000
김지은	04학번	30,000
김지한	18학번	30,000
김태림	20학번	30,000
김태우	17학번	30,000
김현수	16학번	30,000
김현신	99학번	30,000
김희재	96학번	30,000
나도연	83학번	30,000
나은애	08학번	30,000
남한솔	16학번	30,000
노건업	99학번	60,000
노일현	09학번	20,000

성명	구분	금액(원)
노지영	91학번	30,000
류동호	89학번	30,000
류재욱	95학번	30,000
류재봉	96학번	30,000
마춘옥	64학번	10,000,000
문관식	08학번	90,000
문나래	13학번	100,000
문종혁	19학번	30,000
문현성	98학번	30,000
박기정	80학번	50,000
박남호	92학번	30,000
박상준	93학번	40,000
박선종	81학번	30,000
박상수	87학번	60,000
박성호	96학번	30,000
박수현	05학번	300,000
박승원	00학번	60,000
박용운	19학번	40,000
박윤현	95학번	30,000
박원복	79학번	90,000
박은주	93학번	60,000
박재홍	14학번	30,000
박종관	86학번	4,000,000
박종성	14학번	40,000
박지영	99학번	30,000
박찬희	22학번	100,000
배석주	90학번	60,000
배은경	02학번	30,000
백승연	12학번	30,000
백인구	92학번	30,000
백찬호	72학번	12,000,000
부종환	81학번	30,000
상연진	02학번	60,000
서기원	81학번	30,000
서유경	92학번	90,000
서광주	82학번	1,000,000
이동준	18학번	30,000
손세준	05학번	40,000
송대현	86학번	60,000
송민형	11학번	390,000
송광영	14학번	30,000
송철준	04학번	30,000
송치민	93학번	30,000
송현우	15학번	60,000
송효섭	93학번	30,000
신민하	97학번	60,000
신아람	11학번	30,000
신연재	81학번	30,000
신용규	17학번	150,000
신윤경	08학번	30,000
신용철	04학번	30,000
신인선	11학번	90,000
신정현	02학번	40,000
심자원	15학번	50,000
심찬	03학번	60,000
안미라	16학번	200,000
안상범	98학번	20,000
안우혁	19학번	40,000
안욱, 안상현		4,000,000
안준상	92학번	30,000
안찬영	80학번	50,000
양병욱	14학번	30,000
양연우	97학번	60,000
염홍길	02학번	30,000
여민기	18학번	30,000
염철	88학번	150,000
오성식	79학번	150,000
오상진	04학번	30,000
오윤	03학번	30,000
오정훈	96학번	90,000
오주환	86학번	90,000
오창엽	85학번	30,000
우재만	71학번	60,000
유근혁	11학번	90,000
유인경	13학번	3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유시영	84학번	30,000
유영미	82학번	90,000
유은찬	20학번	30,000
유재형	96학번	30,000
유정은	05학번	30,000
유진규	11학번	30,000
윤득영	85학번	500,000
윤진수	14학번	30,000
윤성원	73학번	10,000,000
윤진선	02학번	100,000
이경희	87학번	3,000,000
이동만	83학번	75,000
이동원	18학번	30,000
이동원	01학번	60,000
이동철	87학번	60,000
이미경	84학번	300,000
이미현	17학번	30,000
이병길	07학번	500,000
이사우	17학번	30,000
이상광	67학번	300,000
이상식	79학번	90,000
이서현	11학번	1,000,000
이석주	79학번	8,000,000
이성배	98학번	30,000
이성조	77학번	40,000
이세희	69학번	130,768,575
이수연	06학번	20,000
이승원	00학번	30,000
이승재	92학번	150,000
이승조	78학번	30,000
이양희	03학번	1,000,000
이영도	81학번	30,000
이영화	68학번	30,000
이예지	16학번	30,000
이옥성	76학번	60,000
이용권	80학번	30,000
이용출	82학번	30,000
이유림	19학번	30,000
이유진	03학번	1,500,000
이은소	73학번	30,000
이장일	88학번	30,000
이재호	04학번	30,000
이재홍	88학번	90,000
이정보	15학번	30,000
이종섭	80학번	30,000
이주성	02학번	300,000
이준희	86학번	150,000
이지연	95학번	30,000
이택규	14학번	40,000
이하나	02학번	30,000
이현식	11학번	90,000
이혜영	91학번	30,000
이혜원	96학번	100,000
이호경	91학번	30,000
이화광	96학번	30,000
이후민	21학번	30,000
이희라	97학번	60,000
이희재	86학번	60,000
이희성	89학번	30,000
이희수	75학번	1,000,000
임동우	61학번	30,000
임은숙	83학번	60,000
임재복	82학번	30,000
임형준	18학번	30,000
장상환	87학번	30,000
장선호	18학번	30,000
장일정	87학번	30,000
장재혁	14학번	90,000
장지애	16학번	50,000
전별	11학번	90,000
전성철	76학번	150,000
정봉기	84학번	200,000
정순자	91학번	30,000
정승화	99학번	30,000
정인용	91학번	3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정연우	77학번	30,000
정영조	74학번	300,000
정재민	81학번	150,000
정재완	88학번	100,000
정지훈	98학번	30,000
정휘영	98학번	30,000
정희웅	10학번	30,000
재현수	97학번	30,000
조규태	72학번	150,000
조기식	02학번	180,000
조동식	69학번	30,000
조민기	91학번	30,000
조성욱	87학번	150,000
조수연	85학번	30,000
조양현	05학번	2,000,000
조용배	86학번	30,000
조원규	92학번	30,000
조은서	17학번	30,000
주다름	10학번	30,000
지연정	99학번	10,000
진수호	02학번	200,000
차은수	01학번	30,000
차현경	15학번	30,000
채미혜	98학번	30,000
천부기	97학번	5,030,000
최근호	87학번	30,000
최병천	81학번	30,000
최봉실	96학번	20,000
최선아	01학번	300,000
최수연	10학번	30,000
최승엽	16학번	30,000
최영규	84학번	30,000
최은정	92학번	300,000
최장호	06학번	30,000
최종혁	15학번	30,000
최태민	90학번	90,000
최무관하늘	17학번	30,000
추가영	04학번	30,000
태현주	18학번	30,000
하상원	74학번	150,000
하석근	95학번	40,000
하정수	81학번	30,000
한나린	18학번	30,000
한외섭	05학번	90,000
함승연	18학번	30,000
함영준	81학번	30,000
하완	78학번	90,000
하욱	94학번	30,000
한소영	14학번	30,000
홍영표	81학번	150,000
홍환기	94학번	30,000
홍의표	00학번	30,000
홍현주	82학번	30,000
황송이	05학번	30,000
황인자	74학번	30,000
황지현	86학번	60,000
황희재	16학번	30,000
최정준	외대교수	300,000
고태진	외대교수	195,500
곽새라	외대교수	240,000
곽순재	외대교수	90,000
권경애	외대교수	450,000
권기수	외대교수	90,000
권영우	외대교수	150,000
권희만	외대교수	150,000
김경희	외대교수	450,000
김민정	외대교수	60,000
김우철	영예교수	1,338,165
김상범	외대교수	405,000
김신영	외대교수	150,000
김원경	외대교수	150,000
김유경	외대교수	541,600
김정연	외대교수	30,000
김진아	외대교수	90,000
김찬환	외대교수	60,000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김태성	외대교수	30,000
김한식	외대교수	30,000
김형래	외대교수	90,000
김혜진	외대교수	180,000
노명환	외대교수	105,000
명희준	외대교수	150,000
문지희	외대교수	300,000
박경은	외대교수	300,000
박미정	외대교수	60,000
박재적	외대교수	10,000,000
박정운	외대교수	3,420,000
박종찬	외대교수	150,000
박치원	외대교수	150,000
박홍수	외대교수	300,000
빙교영	외대교수	360,000
송연식	외대교수	60,000
송장남	외대교수	10,000,000
송준서	외대교수	30,000
신근혜	외대교수	595,074
신정아	외대교수	750,000
안인경	외대교수	30,000
양재완	외대교수	30,000
여효규	외대교수	105,000
오종진	외대교수	1,000,000
온대원	외대교수	300,000
유기환	외대교수	90,000
윤성우	외대교수	1,673,100
윤승영	외대교수	300,000
윤은경	외대교수	30,000
이근영	외대교수	105,000
이보화	외대교수	450,000
이승래	외대교수	60,000
이승용	외대교수	100,000
이윤식	외대교수	600,000
이윤희	외대교수	60,000
이은구	외대교수	30,000
이인섭	외대교수	30,000
이재욱	외대교수	900,000
이주연	외대교수	60,000
이지은	외대교수	90,000
이진아	외대교수	1,200,000
이창현	외대교수	6,000,000
이창훈	외대교수	150,000
이준호	외대교수	150,000
이태욱	외대교수	600,000
이향	외대교수	834,000
이현환	외대교수	150,000
임근동	외대교수	30,000
임대근	외대교수	300,000
임소라	외대교수	937,500
임항욱	외대교수	650,000
장봉익	외대교수	300,000
장문영	외대교수	60,000
장철자	외대교수	60,000
정혜연	외대교수	60,000
재성훈	외대교수	30,000
조희문	외대교수	450,000
최영수	외대교수	150,000
최요섭	외대교수	90,000
한원덕	외대교수	60,000
홍성민	외대교수	300,000
홍종명	외대교수	30,000
황성우	외대교수	30,000
황지연	외대교수	60,000
Nadir Engin Uzun	외대교수	1,000,000
Rovshan Ibrahimov	외대교수	1,000,000
김대성	영예교수	500,000
김우조	영예교수	60,000
장실	영예교수	30,000
최재철	영예교수	30,000
김미리	외대직원	30,000
김석중	외대직원	60,000
김원범	외대직원	30,000
김현숙	외대직원	150,000
김해정	외대직원	30,000

기부 혜택

외대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부자 예우

구분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념품 제공	○	○	○	○	○	○	○
학교 발간 홍보물 제공	○	○	○	○	○	○	○
기부증서 증정 및 영수증 발급	○	○	○	○	○	○	○
평생 차량출입증 제공		○	○	○	○	○	○
외국어 연수 평가원 수강료 본인 및 직계가족 30% 할인		○	○	○	○	○	○
감사패 증정			○	○	○	○	○
평생 도서관 열람증 제공				○	○	○	○
대천수련원 이용시 교직원에게 준한 예우				○	○	○	○
출 명칭 동판 부착					○	○	○
홍상 부조 부착							○

●세제혜택

1. 개인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① 기부금 기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 자동 신고

방법 ②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2. 법인기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이월결손금) X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며,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만원)	세율(%)	예금주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방법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3.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문의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전화) 02-2173-2756 (이메일) hufs5@hufs.ac.kr

QS 세계대학평가 평판도 설문위원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영국의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QS社(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는 전 세계 2,000여 개 대학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여 매년 6월 세계대학평가 결과로 1,000여 개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는 약 40여 개 대학이 본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경우,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과 우수 교원 확보 및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의 주요 지표로는 대학 평판도, 교육여건, 연구성과, 국제화 지표가 있으며, 이 중 평판도 설문 결과를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하여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합니다. 학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국내·외 대학을, 산업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업무 분야에서 채용을 선호하는 국내·외 대학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합니다.

현재 2024년 평가에 참여해 주실 설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설문 위원으로 등록하실 경우, 제출하신 이메일 주소로 2024년 1~2월 중에 QS에서 직접 대학 평판도 설문조사 링크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외대 가족 여러분의 설문 참여 하나하나가 우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설문위원으로 등록하시어 소중한 의견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계평판도 설문위원 등록
(국내·외 교육계 인사·교원 등)
◆상시 등록 가능



산업계평판도 설문위원 등록
(국내·외 산업계 인사·직장인 등)

◆문의 : 기획조정처 평가감사팀(02-2173-2027)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



한국외국어대학교



Global HUFS 120